

2007. 12
독도연구 2007-11

울릉도 · 독도 사진 자료집

- 자연 · 인문지리 편 -

2007. 12

김주환 · 김종권 · 홍충렬



일 러 두 기

1. 이 사진 자료집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가 2007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울릉도·독도 영상자료집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2. 이 연구는 동국대 김주환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으며, 김종권 사진작가, 홍충렬 경민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 이 사진 자료집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는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사진자료 분류 방법에 따라 별도 편집한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인문지리 사진 63점이 실려 있습니다.
4. 제1부의 모든 사진은 공동 연구자인 김종권 사진작가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5. 제2부에서는 울릉도·독도의 자연·인문지리 개관과 사진 자료 조사 및 정리의 중요성, 그리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사진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1.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도연구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지사진 : ©김종권 제공

목 차

제1부 사진으로 보는 울릉도·독도 자연·인문지리	1
1. 울릉도	5
1) 자연지리 / 5	
2) 인문지리 / 15	
2. 독도	19
1) 자연지리 / 19	
2) 인문지리 / 32	
3) 인물 / 40	
4) 기타 / 41	
제2부 울릉도·독도 사진 자료집 발간 기초조사	45
제1장 울릉도·독도의 자연·인문환경	47
1. 자연환경	47
1) 지형 / 47	
2) 지질 / 50	
3) 토양 / 53	
4) 해양 / 55	
5) 기후와 생물 / 57	
2. 인문환경	63
1) 울릉도 및 독도의 거주의 역사 / 63	
2) 울릉도의 인구 / 65	
3) 울릉도의 산업 / 68	

제2장 사진자료 조사·정리 필요성	71
1.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의미	71
2.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수집	71
3.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정리	71
4.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분석 및 평가	71
제3장 기초조사가 주는 시사점	73
1. 수집된 자료의 분류 및 정리의 필요성	73
2. 사진자료정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73
1) 항공촬영 자료집(해저포함 100매)	/ 73
2) 지형자료집(150매)	/ 73
3) 문화·역사 자료집(100매)	/ 74
4) 촌락과 도시 자료집(100매)	/ 74
5) 관광·경제 자료집(100매)	/ 74
6) 인물·기타 자료집(100매)	/ 75
7) 지도자료집(100매)	/ 75
제4장 기존 발간 사진자료 분류 목록	76
1. 자연지리	77
1) 기후	/ 77
2) 식생	/ 77
3) 자연경관	/ 81
4) 지형	/ 89
2. 인문지리	95
1) 경제	/ 95
2) 관광	/ 98
3) 도시(마을)	/ 102
4) 촌락	/ 102

5) 문화역사 / 103	
6) 인문경관 / 111	
3. 그림 113	
4. 지도 113	
5. 인물 115	
6. 기타 122	
1) 동물 / 122	
2) 등대 / 126	
3) 뗏목탐사 / 127	
4) 사물 / 127	
5) 태극기 / 128	
6) 한국산악회 / 128	
7) 해양조사 / 128	
참고문헌 ——————	129

표, 그림 목 차

<표 1> 사진자료의 분류	3
<그림 1> 울릉도의 주요 지명과 관광자원의 분포	47
<그림 2> 독도의 지형분류(전영권, 2005)	49

사진 목차

<사진 1>	울릉도 향나무	5
<사진 2>	성인봉 원시림	5
<사진 3>	북저바위	6
<사진 4>	국수바위	6
<사진 5>	저동항의 촛대바위	7
<사진 6>	북면의 해안절벽	7
<사진 7>	봉래폭포	8
<사진 8>	울릉도전경	9
<사진 9>	남양	10
<사진 10>	남양리전경	10
<사진 11>	송곳산	11
<사진 12>	죽도에서 바라본 섬목과 깍새섬(관음도)	11
<사진 13>	내수전 바닷가	12
<사진 14>	내수전	12
<사진 15>	석포-내수전 옛길	13
<사진 16>	천부	13
<사진 17>	죽도	14
<사진 18>	저동	15
<사진 19>	도동항	15
<사진 20>	도동대교	16
<사진 21>	오징어를 말리는 바닷가 풍경	16
<사진 22>	현포고분군	17
<사진 23>	성인봉 비	17
<사진 24>	투막집	18
<사진 25>	독도전망대	18
<사진 26>	하얀꽃	19

<사진 27> 탕건바위와 해국	19
<사진 28> 동도, 서도 사이 10월의 해국	20
<사진 29> 동도의 독립문바위	20
<사진 30> 탕건봉	21
<사진 31> 주상절리	21
<사진 32> 시스택	22
<사진 33> 장군바위	23
<사진 34> 삼형제굴바위	24
<사진 35> 서도와 삼형제굴바위	25
<사진 36> 천장굴	25
<사진 37> 해식애	26
<사진 38> 독도의 일출	27
<사진 39> 독도와 그 주변	27
<사진 40> 독도의 해안	28
<사진 41> 동도와 서도 사이 해역	28
<사진 42> 동도에서 본 서도	29
<사진 43> 서도전경	29
<사진 44> 독도전경	30
<사진 45> 서도리 태풍전야	30
<사진 46> 서도에서 본 동도전경	31
<사진 47> 서도로 지는 노을	31
<사진 48> 선착장	32
<사진 49> 선착장	32
<사진 50> 접안시설과 해경함정	33
<사진 51> 어민위령비	34
<사진 52> 위령비	35
<사진 53> 독도영역표석	35
<사진 54> 영해기점표시	36
<사진 55> 한국령이 쓰여진 바위	36
<사진 56> 태극기 계양대	37

<사진 57> 경비대건물과 등대	38
<사진 58> 독도경비대 모습	39
<사진 59> 독도사랑 노부부	40
<사진 60> 우체통	41
<사진 61> 우체통	42
<사진 62> 새둥지	43
<사진 63> 독도의 생명들	44

제1부

사진으로 보는 울릉도·독도
자연·인문지리

제1부 「사진으로 보는 울릉도 · 독도 자연 · 인문지리」에는 울릉도 사진 25점과
독도 사진 38점, 총 63점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자연지리, 인물지
리, 인물, 기타의 대분류와 각각의 중 · 소분류에 따라 차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분류에 따른 사진의 분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1>

사진자료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울릉도	독도	계
자연지리	지형	식생	.	2	3
		주상절리	2	3	5
		시스택	1	2	3
		해식애	1	1	2
		폭포	1	.	1
		시아치	.	2	2
		해식동굴	.	1	1
	자연경관	.	10	10	20
인문지리	경제	항구	2	.	2
		대교	1	.	1
		특산물	1	.	1
		선착장	.	3	3
	문화역사	.	2	5	7
	촌락	.	1	.	1
	인문경관	.	1	3	4
인물	.	.	.	1	1
기타	.	.	.	4	4
계	.	.	25	38	63

1. 울릉도

1) 자연자리

(1) 식생



〈사진 1〉 울릉도 향나무



〈사진 2〉 성인봉 원시림

(2) 지형

① 주상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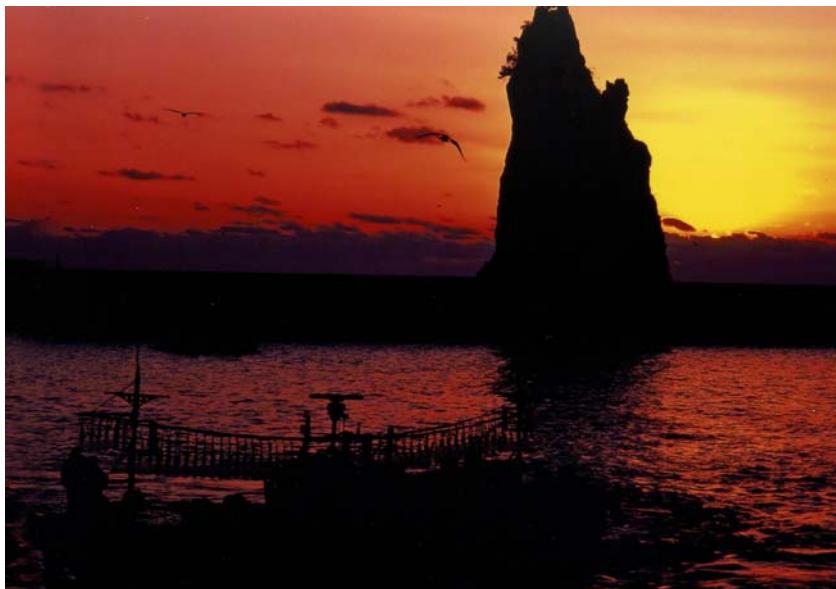


〈사진 3〉 북적바위



〈사진 4〉 국수바위

② 시스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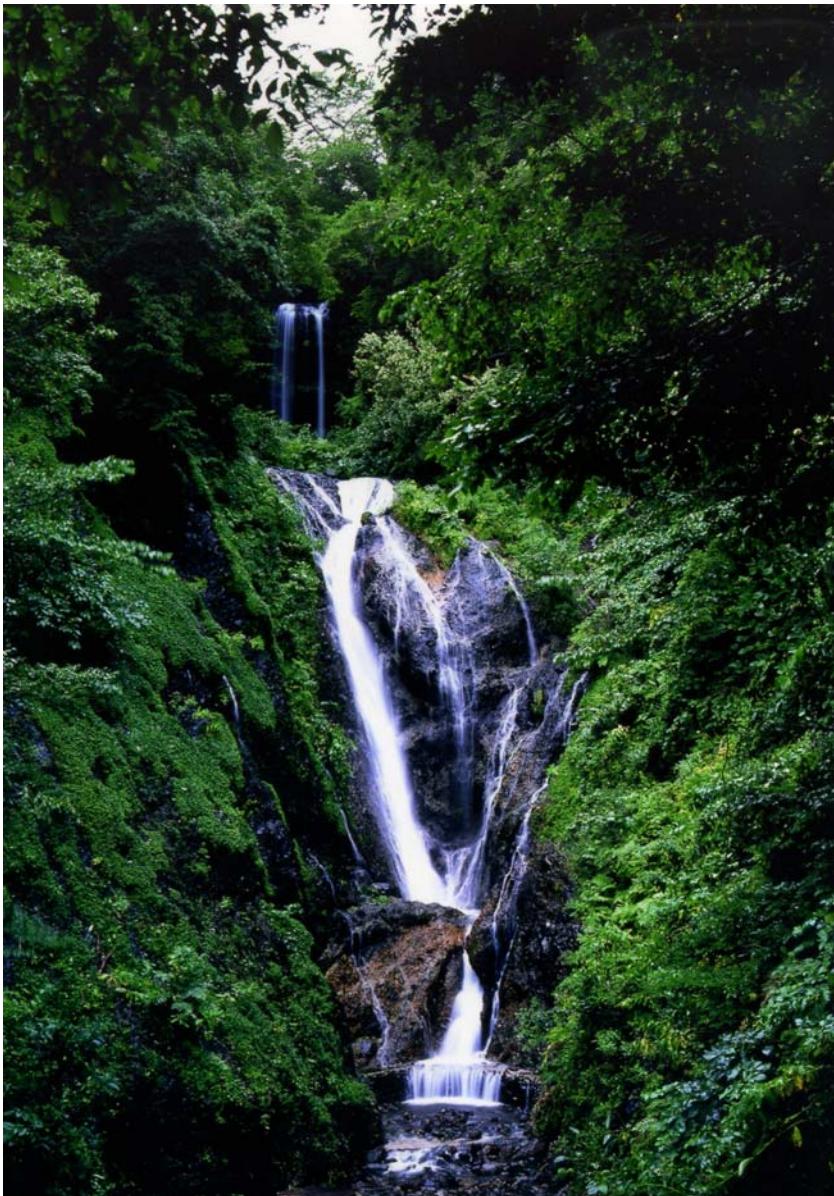
〈사진 5〉 저동 향의 촛대바위

③ 해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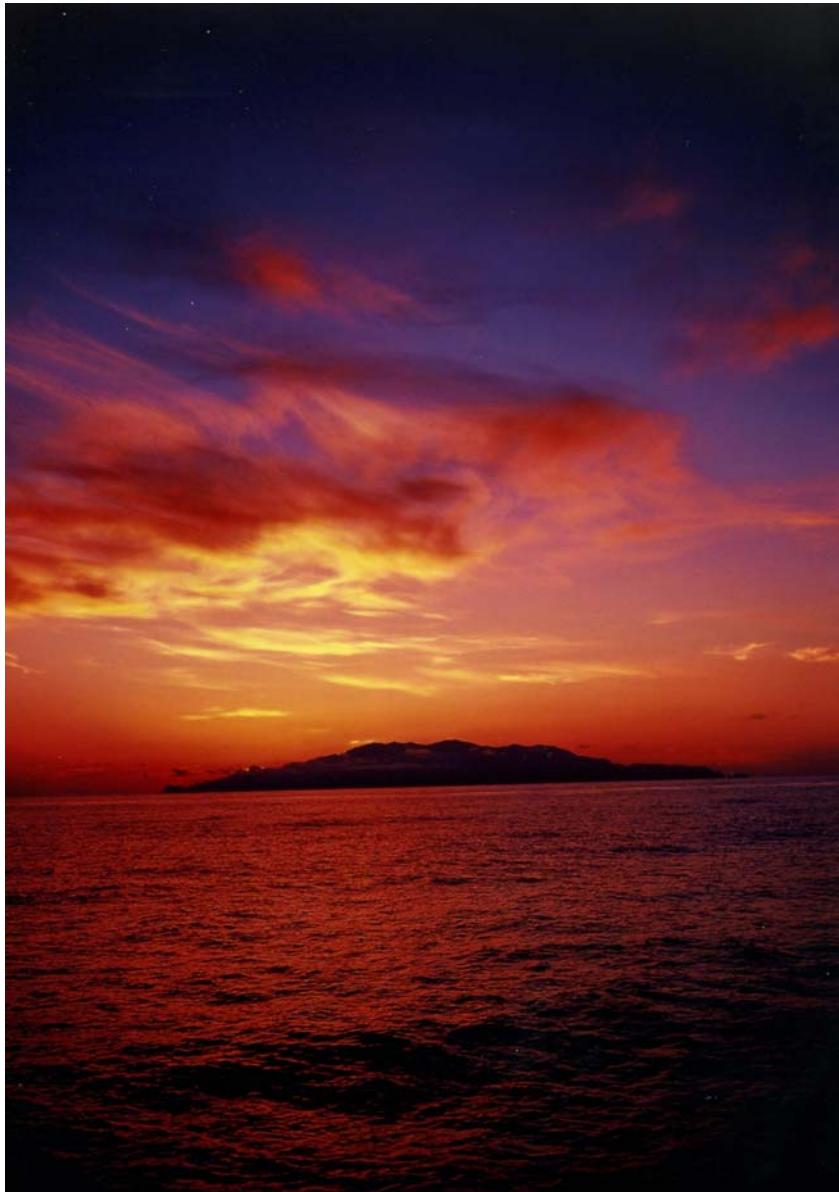
〈사진 6〉 북면의 해안절벽

④ 폭포



〈사진 7〉 봉래폭포

(3) 자연경관



〈사진 8〉 울릉도전경



〈사진 9〉 남양



〈사진 10〉 남양리전경



〈사진 11〉 송곳산



〈사진 12〉 죽도에서 바라본 섬목과 꽉새섬(관음도)



〈사진 13〉 내수전 바닷가



〈사진 14〉 내수전



〈사진 15〉 석포-내수전 옛길



〈사진 16〉 천부



〈사진 17〉 죽도

2) 인문자리

(1) 경제

① 항구



〈사진 18〉 제동



〈사진 19〉 도동해

② 대교



〈사진 20〉 도동대교

③ 특산물



〈사진 21〉 오징어를 말리는 바닷가 풍경

(2) 문화역사



〈사진 22〉 연포고분군



〈사진 23〉 성인봉 비

(3) 촌락



〈사진 24〉 투막집

(4) 인문경관



〈사진 25〉 독도전망대

2. 독도

1) 자연자리

(1) 식생



〈사진 26〉 학암꽃



〈사진 27〉 탕건바위와 해국



〈사진 28〉 동도, 서도 사이 10월의 해국

(2) 지형

① 주상절리



〈사진 29〉 동도의 독립문바위



〈사진 30〉 탕건봉



〈사진 31〉 주상절리

② 시스택



〈사진 32〉 시스택



〈사진 33〉 장군바위

③ 시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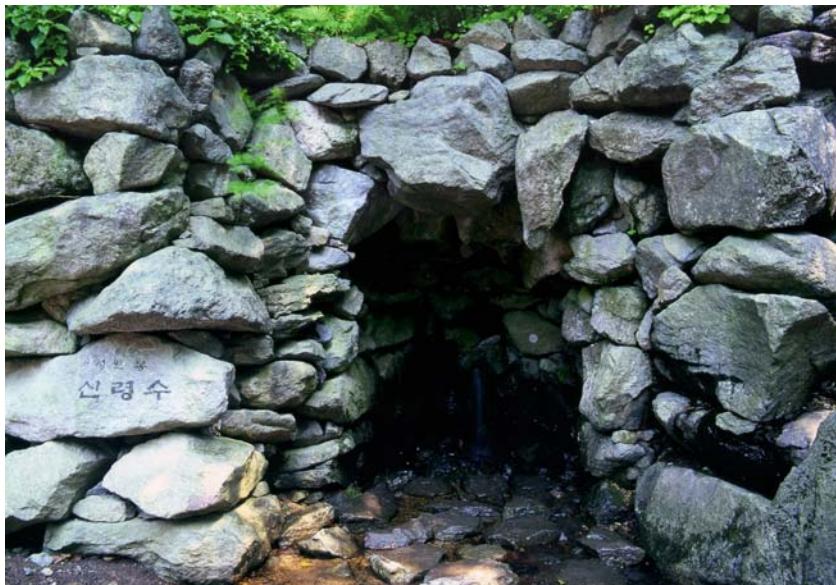


〈사진 34〉 삼형제굴바위



〈사진 35〉 석도와 삼형제굴 바위

④ 해식동굴



〈사진 36〉 천장굴

⑤ 해식애



〈사진 37〉 해식애

(3) 자연경관



〈사진 38〉 독도의 일출



〈사진 39〉 독도와 그 주변



〈사진 40〉 독도의 해안



〈사진 41〉 동도와 서도 사이 해역



〈사진 42〉 동도에서 본 섬도



〈사진 43〉 섬도전경



〈사진 44〉 독도전경



〈사진 45〉 서도리 태풍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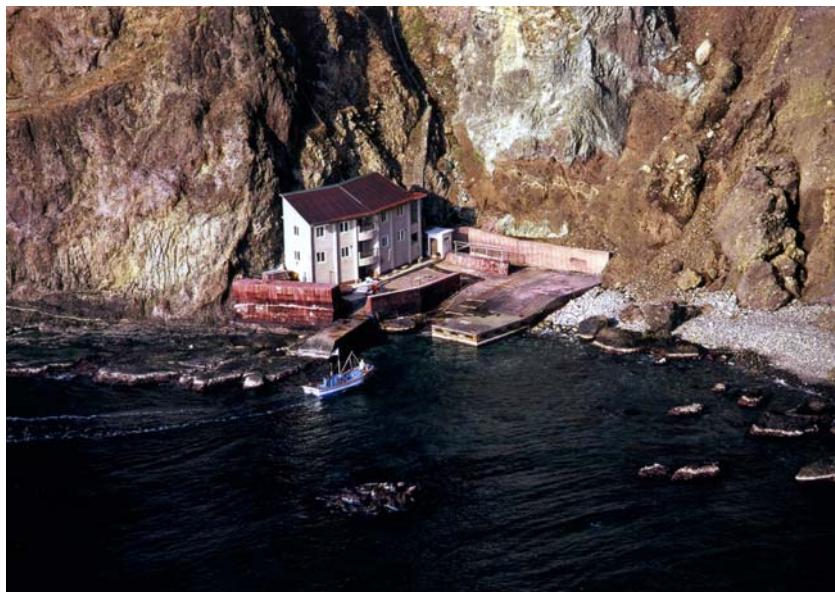
〈사진 46〉 서도에서 본 동도전경



〈사진 47〉 서도로 지는 노을

2) 인문자리

(1) 경제(선착장)



〈사진 48〉 선착장



〈사진 49〉 선착장



〈사진 50〉 접안시설과 해경함정

(2) 문화역사



〈사진 51〉 어민위령비



〈사진 52〉 위령비



〈사진 53〉 독도영역표석



〈사진 54〉 영해기점표시



〈사진 55〉 한국령이 쓰여진 바위

(3) 인문경관



〈사진 56〉 태극기 계양대



〈사진 57〉 경비대건물과 등대



〈사진 58〉 독도 경비대 모습

3) 인물



〈사진 59〉 독도사랑 노부부

4) 기타



〈사진 60〉 우체통



〈사진 61〉 우체통



〈사진 62〉 새둥지



〈사진 63〉 독도의 생명들

제2부

울릉도·독도 사진 자료집 발간 기초조사

제1장 울릉도·독도의 자연·인문환경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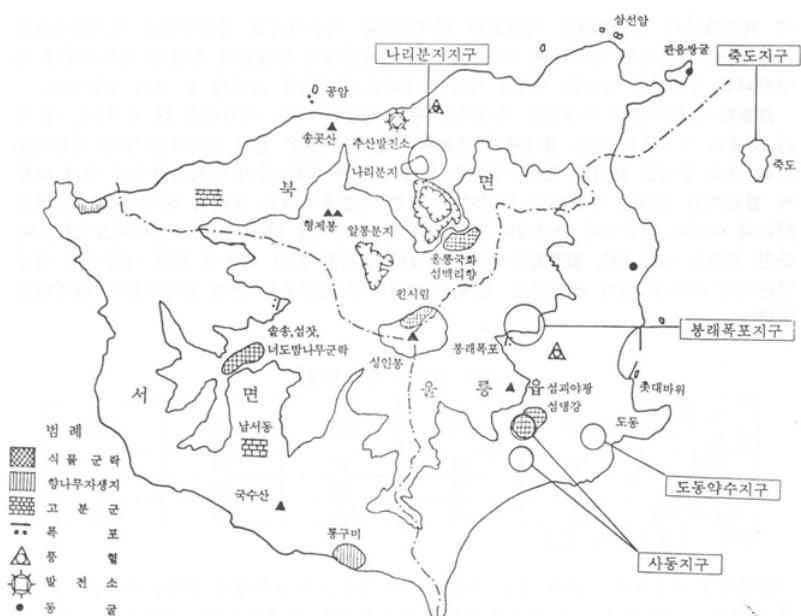
1) 지형

울릉도와 독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섬 전체를 통하여 화산지형과 해안 지형이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본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형들이 각종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규모로 보면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관찰되는 지형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급경사의 지형적 특성이 나타나고 하천 지형은 거의 없다.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은 화산 지형과 해안 지형 그리고 기타 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울릉도의 경우 폭포와 같은 지형이 발견되기 때문에 하천 지형을 추가적인 분류 기준으로 넣었다.

<그림 1>

울릉도의 주요 지명과 관광자원의 분포



자료 : 울릉도 종합학술 보고서, 1987; 재성일 수정, 1995.

(1) 울릉도

울릉도는 화산지형과 해안 지형, 하천 지형 그리고 기타 지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화산 지형들이 섬 곳곳에서 발견되며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굴, 시스택(sea stack) 등의 해안지형도 발견된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화산활동과 해식 작용이 혼재된 지형들이 분포한다. 그 밖에 폭포와 같은 하천 지형도 존재한다.

① 화산 지형

울릉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형은 화산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울릉도 자체는 조면암류에 의한 종상화산(Tholoide)[○]이며, 화산의 상부에 칼데라(Caldera)분지인 나리분지와 알봉 분지 등의 각종 중·소규모 분지 지형이 발달하였다. 이 분지 지형은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해안가 근처에 현무암질 안산암의 용암이 분출되어 빠른 냉각·고결 과정을 거치면서, 수직과 수평 형태의 주상절리들이 형성됨으로써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릉도의 화산지형에는 칼데라와 나리분지와 소나리분지, 알봉분지와 소알봉분지, 그리고 외륜산과 주상절리 등이 있다.

② 하천지형

울릉도는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천 퇴적 지형이 발달하기 어렵다. 하천발달이 미약한 이유는 울릉도의 지질이 응회암 및 집괴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수가 발달하기에는 좋지만 지표수가 흐르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형의 기복이 크고, 경사도 급하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도 짧다.

울릉도의 하천 중 지형도 상에서 식별 가능한 하천과 수계조직은 약 20여개 정도이다.

한편 울릉도에서는 해식작용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해안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북면의 관음도(해식동굴), 도동항의 해식애, 북면의 삼선암(시스택), 딴방우와 남면의 촉대암, 현포동의 해안단구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기타 지형에는 풍혈, 애추, 암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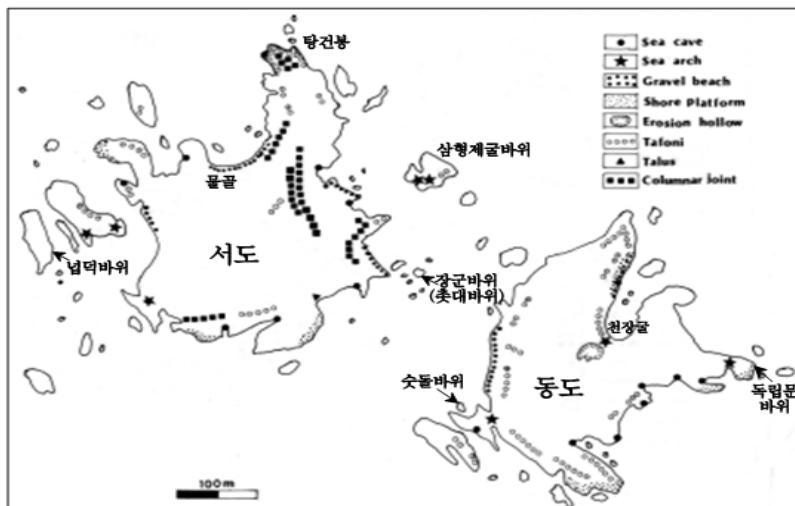
(2) 독도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92km 지점의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암석들이 수면위로 노출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8.6km^2 정도이다.

도이다. 독도 역시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화산 지형들이 분포한다. 또한 바다 위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식 작용의 영향으로 다양한 해안 지형들이 나타난다.

<그림 2>

독도의 지형분류(전영권, 2005)



① 화산 지형

독도가 위치한 화산체는 수중에서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되었으며 해수면 위로 노출된 이후에도 계속된 화산 활동으로 현재의 독도가 만들어졌다. 독도의 지질 역시 조면암류와 응회암류의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상에는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형들이 관찰된다. 대표적인 화산 지형으로는 주상절리와 탄낭구조가 있다.

② 해안 지형

독도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이후에 각종 풍화와 침식 작용의 영향으로 현재는 원지형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해안가는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그 변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파식 작용의 결과로 경사도가 큰 편이다. 독도는 각종 파식 작용과 염분 작용으로 다양한 해안 지형이 형성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해식 동굴, 해식애, 시스택, 해식 아치, 역빈해안 등이 발견된다. 기타지형에는 타포니, 암맥, 애추, 침식와지가 있다.

(3) 울릉도 및 독도 근해 지형

울릉도와 독도 근해의 해저에는 파식대와 같은 해안 지형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저 퇴적물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의 해수면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독도의 파식대는 4기에 일어났던 해수면이 90~130m 정도 하강했을 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전영권, 2005).

① 울릉도 근해의 해저 지형

울릉도를 비롯한 독도에는 조약돌 사빈(shingle beach)i이 있으며, 파랑에너지가 큰 두부지역(head land)에서 암석 낙하에 의해서 1m 이상의 각력들이 공급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입경이 작은 퇴적물의 경우에는 연해류나 파랑에 의해 운반되어 파랑에너지가 작은 만입부에 퇴적되기 때문에 만입부의 분급상태가 가장 좋다. 퇴적물의 계속적인 공급은 사빈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② 독도 근해의 해저 지형

독도 근해에서는, 동도에서 서도로 가면서 기반암, 원마도가 높은 왕자갈, 모래순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분급이 양호하다. 탁월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파랑이 발생하면 마식 작용이 생겨나 원마도가 높고, 입자 크기가 10cm 정도의 왕자갈이 만들어진다. 서도 지역은 이 탁월풍의 그늘지역으로 그 연안에 모래가 형성되어 있다(이수광·박혜숙, 1981).

파식대는 서도와 동도에 넓게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해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을 뿐 대부분 해수면 아래에 있다. 서도의 북동방향에도 수심 10m의 소규모의 파식대가 발달해 있다. 한편 파식대 위에는 곳곳에 마린포트홀(marine pot hole)i이 발달하고 있다(이수광·박혜숙, 1981).

2) 지질

울릉도와 독도의 화산체를 모두 포함하여 독도 화산체라고 하며, 이 섬들은 플라이오세-플레이스토세 시기에 화산체의 화산활동의 일부로 생성되었다. 울릉도는 제주도와 같이 열점(hot spot)에 의한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독도 역시 울릉도와 연결된 화산체로서 비슷한 성인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Shon & Park, 1994).

(1) 울릉도 및 독도 주변의 지질 환경

동해는 태평양 해양판이 유라시아 대륙판과 접한 해구를 따라서 하강 섭입(subduction)하면서 후 열개 작용(back-arc spreading)으로 유라시아 대륙 지각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Uyeda & Miyashiro, 1974; Uyeda & Kanamori, 1979; 한국해양연구원, 2005). 동해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형성된 섭입한 판과 해구의 반대편에 섭입과 관련된 화산대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를 배호상 분지(back-arc basin)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해의 생성 과정은 확실하지 않다.

(2) 화산체의 구조

독도와 울릉도는 동해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일본분지, 동쪽으로 야마토 분지, 남쪽으로는 울릉분지와 오끼 뱅크를 끼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는 동해저의 큰 화산체의 일부로 화산체의 화산 활동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해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동해의 배호분지 안에는 동해 화장과 관련되어 생성된 알칼리 화산암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화산체 역시 알칼리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어 이 화산체들은 동해의 생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장선경, 1997).

① 울릉도 화산체

울릉도 화산체는 기저부의 폭이 장경 약 30km로, 해저면에서 약 2,200m 높이 까지 형성되어 있다. 초기에 형성된 화산체는 순상 화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융기(updoming)에 의하여 화산체의 높이가 증가하고 용암과 화산쇄설물의 중심 분출에 의해 지금의 화산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해면에서 수심 1,500m까지 화산체 곳곳에 약 30여개의 기생화산이 존재한다. 해면으로부터 약 700m 까지는 조면암질 용암류가 분포하며, 수심 약 200m 정도에서 경사도가 증가한다. 해면위로는 울릉도의 최고봉인 높이가 983.6m에 이르는 성인봉이 있다.

② 울릉 해산

울릉 해산은 그 높이가 약 850~2,200m로 울릉도 동쪽의 분지간 통로 중앙에 형성되어 있다. 남북으로 다소 긴 형태를 보이며 퇴적물의 집적이 많지 않으며 사면에는 비교적 불규칙한 돌출지형과 계곡들이 발달해 있다. 울릉도 화산체와

울릉 해산의 정상부는 평평하게 침식되어 있지 않다. 울릉도 화산체의 경우에는 최근 2,300년 전까지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민경덕 등, 1988) 아직 침식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울릉 해산의 경우에는 해파나 해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850m의 깊은 수심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윤석훈 등, 2001).

③ 독도 해산

울릉도 화산체와 울릉 해산과는 달리, 독도해산들은 정상부가 해식에 의해 평탄화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평탄한 지형을 지닌 해산을 기요(guyot)라고 하는데, 정상부는 평정해산(flat-top)의 형태를 띠며 다소 급격한 경사만을 지니고 있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화산이라 정의한다(Hess, 1946 ; 강무희 등 2002). 이러한 평정해산은 해수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되었으며 약 1,200~900만년 사이에 해면 아래로 침강한 것으로 여겨진다(강무희 등, 2005). 따라서 그 정상부의 수심은 그 당시의 해수면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3) 지사 및 지질 분포

① 울릉도의 지사 및 지질 분포

울릉도 화산체는 플라이스토세 이후에 해면 아래 2,000m 부근에서 평탄한 해식대가 형성되었고 그 위에서 알칼리 용암이 분출하여 울릉도가 생성되었다. 이후의 화산활동과 그 사이에 일어난 후화산작용으로 울릉도와 그 화산체의 골격이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울릉도는 점성이 큰 조면암으로 된 종상 화산으로 조면암, 현무암질 집괴암, 향암(phonolit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 지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각기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화산 활동 시기를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과 산출되는 암류도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김규한(1996)의 연구에서는 저동층이라는 새로운 층서를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 울릉도의 지질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 울릉도의 지질은 조면암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현무암류, 조면안산암류 순으로 많다.

② 독도의 지사 및 분포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해수면 아래의 화산체는 울릉도 화산체와 비슷하다. 독도 화산체의 기저부가 대부분 현무암질 집괴암인 것으로 보아 과거 현무암 분출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상부로 가면서 주로 조

면암질 집괴암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독도 화산체 곳곳에는 암맥이 관찰되며 응회암이 협재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독도의 지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지지 않다가, 1994년에 손영관과 박기화가 독도의 지질을 자세하게 연구하여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독도는 제3기 전기 및 후기 플라이오세(약 460~250만년 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조면암류를 비롯한 여덟 개의 암석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손영관, 박기화(1994)에 의하면 독도의 형성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는 수중분출단계로 해저에서 조면암질 용암류가 분출하여 조면암 I (Trachyte I)이 독도의 기저부를 형성하였다.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화산활동이 중단되어 부정합면이 발달하게 되었고, 화산 활동이 다시 시작된 뒤, 그 위에 화성 쇄설암이 퇴적되었다. 화성 쇄설암은 괴상의 각력응회암(massive breccia, Unit P~I)과 층상라필리응회암층(bedded tuff, Unit P~II)으로 분류되며, 조면안산암질 용암류(trachyandesite)의 분출 이후에 또 다시 스코리아질 라필리 응회암층(Scoriaceous lapilli tuff, Unit P-III)이 쌓였다. 소규모의 조면암 II(Trachyte II)이 조면안산암을 피복하고 있으며, 그 후 마그마의 천부관입에 의해 조면암 III(Trachyte III)과 암맥(Trachyte dike)이 만들어졌다.

3) 토양

(1) 울릉도

울릉도의 토층은 부식층 위에 분포하는 암회색 내지 흑색의 사질 룸(sandy loam)과 하부의 현무암 및 조면암질 암류의 풍화토인 룸(lo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질 룸은 도동과 사동 지역의 구릉 사면에서 나타나며, 층 두께가 2~5m에 불과하나 룸은 10m 이상 되는 곳도 발견된다. 저동으로부터 사동에 이르는 지역의 상위층은 약 2m의 깊이의 사질 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식이 혼재되어 있다. 토양의 조성비를 보면 상부의 사질 룸은 자갈 35.48%, 모래 41.10%, 실트 19.39%, 점토 4.03%로 되어 있으며 하위부의 룸은 모래 36.80%, 실트 44.49%, 점토 16.34%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자연보전협회(1981)의 <울릉도 및 독도의 식생>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조면암질 및 현무암질 풍화토와 화산회토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4년의 산림청 임업시험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릉도

의 산림토양의 경우 표토가 미사질 또는 사질토양이며 층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토 부위에는 석력(작은 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강우 때에 배수가 용이한 편이었으며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토양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자연실태종합학술보고서, 1996).

1995년 산림청 합동조사반에서 울릉도내의 13개 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울릉도의 모래 함량이 84~94%, 미사함량은 0.5~11.0%, 점토는 2~12%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토양산도는 1981년보다 다소 약산성인 pH 5.6내외로 나타났으며 유기물함량은 8~27%로 풍부한 편이었다(자연실태종합학술보고서, 1996).

(2) 독도

독도의 토양은 산의 정상부에서 풍화·생성된 잔적토로 이루어져 있다. 토성은 사질양토이며 토색은 흑갈색 또는 암갈색을 띤다. 독도는 보통 30° 이상의 급경사로 토양 발달이 미약하다. 토심이 깊은 곳은 60cm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30cm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규, 1990). 독도는 동해 가운데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연중 강풍의 영향으로 인한 토양유실이 심하기 때문에 표토가 얇고 보존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복식물이 없어 태양광선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지온의 상승과 수분 결핍 현상이 일어나 식생이 자라기 어렵다. 동도는 서도에 비해 식물이 더 많은 편이며 이는 지형이 완만하고 토양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바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이성규(1990)는 독도의 토양 분석을 위해 비교적 식생이 잘 자라는 4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을 채취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 지점의 토양은 모두 사양토로 분석되었으며 pH는 4.0~5.9사이로 산성을 나타냈다. 또한 강한 바람을 타고 운반되는 해수의 염분이 토양에 공급되어 제주도의 화산회토와 비교했을 때, K, Na, Mg의 함량이 높았다. 그 밖에 유기물함량은 10.43%이며, C.E.C(양이온 교환 능력)는 18.48me/100g이었다. C.E.C가 높을수록 식생이 자라는데 유리한데, 보통 밭으로 이용되는 토양의 평균치에 비해 높게 나왔다. 유효인의 함량은 밭으로 사용되는 토양의 평균치인 110ppm의 절반 수준이었다.

(3) 토지 이용

울릉군 면적은 총 7,315 ha이며 이 중에서 임야면적은 약 5,522 ha(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지로는 논보다 밭으로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급경사지의 다락밭과 같은 한계농지(限界農地)에서의 농경 기피 현상으로 묵밭이 늘어남에 따라 경지면적이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급경사 지역에는 호우시에 암반사면 붕괴·산사태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밭으로 이용함에 따라 토양침식도 심하게 발생한다(자연실태종합조사, 1996). 독도에서는 토양 조건이 논과 밭과 같은 농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물과 통행로가 충계상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 해양

동해는 동쪽으로는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지만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하고 있어 해양의 성질이 서해 및 남해와는 다르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은 반면 서태평양과의 경계 해협의 수심은 얕아서 주변 해협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결과 지형적으로 고유한 해수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섬 주변의 해저 지형과 해류의 영향으로 독특한 해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해 전반의 해양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윤배·장경일(2003)이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물리학적 특성을 연구하여 정리하였고, 한국해양연구원(2005)에서 독도의 해양 생태계 조사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바 있다.

(1) 해황 특성

① 수온 및 염분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지닌 동해수의 영향을 받으며 표층수의 경우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마난류-동한난류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리만해류-북한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 부근에서 극전선이 형성되어 어장으로서 좋은 환경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울

릉도와 독도는 위치와 지형, 해류의 흐름으로 국지적으로 다른 수온 및 염분구조를 가진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4가지 유형의 수온-염분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② 동해

울릉도와 독도가 위치한 동해는 지형적인 이유로 고유한 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해수를 동해 고유수라고 부른다(Uda, 1934; 김윤일 · 장정배, 2003). 수온은 1~1.2°C 내외, 염분은 34.0~34.2‰, 용존 산소량은 6m/l 정도의 값을 가지며 수심 200m보다 깊은 심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동해 고유수는 전체 해수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핵은 수온이 0°C, 염분이 34.0‰ 용존 산소량이 6m/l정도의 값을 갖는다(승영호, 1992).

동해의 표면 수온은 2월에 남부해역에서 15°C이며, 북부 해역에서는 0°C의 분포를 지닌다. 8월에는 남부가 27°C, 북부가 19°C로 계절적인 변화가 북부보다 남부가 더 작고 위도가 높아지면서 그 차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보통 위도 40°N 근처에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 극전선(subpolar front)이 형성되며 이는 겨울철에 보다 더 뚜렷하다. 극전선의 중심수온은 약 5°C로 이 해역에 중요 어장들이 분포하고 있다(승영호, 1992).

③ 울릉도

울릉도의 수온 분포(2003~2005년)는 여름철에 표층 수온의 평균이 21.5°C, 가을철에는 수온 평균이 18.5°C이다. 표층 해수는 고온 · 저염분의 특성을 가지며 수심 40m까지의 표층수는 수온과 염분의 계절적 변동이 심한 편이다. 수심 80~200m 층에서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수온이 낮고, 수심 5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수온의 수직적인 변동뿐 아니라 시공간적인 변동도 크며, 평균값은 0.4~0.6°C의 분포를 보인다. 계절마다 염분의 분포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며, 수심 5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염분이 평균 34.069‰로 안정된 분포를 보인다(김웅 등, 2006).

④ 독도

독도에 인접한 정점에서 1965년에서 2001년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였다. 그 결과, 수온은 표면에서 8월에 24.4°C로 최대, 2월에 10.5°C로 최소를 보여 연교차가 10.5°C로 나타났다. 수온의 최대 · 최소값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표층에 비해 다소 늦은 달에 나타난다. 염분은 6월과 8월 사이에 급격한 감소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독도 주변해역이 동중국해나 남해로부터 대

마난류를 통해 유입되는 저염분 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봄과 겨울에는 200m보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항시적으로 대마난류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34.2%이상의 염분값을 갖는다.

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해역

김윤배·장경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수온과 염분 분포는 등온선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제1유형은 수심 500m보다 얕은 수심에서 등온선과 등염분선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오면서 얕아지는 형태이다. 제2유형은 첫 번째 경우와 달리 등온선과 등염분선이 독도 쪽으로 오면서 깊어지는 경우이다. 제3유형은 등온선이나 등염분선의 형태가 평평한 형태를 띠는 경우이다. 제4유형은 등온선과 등염분선이 사발모양의 형태를 갖는 경우로, 중앙부의 수심 100m 되는 곳에 수온이 중앙부가 높게 나타난다.

(2) 해류

동해의 순환은 대마난류의 순환 형태 및 이안현상, 북한 난류의 형성, 중간수의 형성 및 확장, 동해 고유수의 생성 및 저층 순환 등의 다양한 요소가 관여한다 (승영호, 1992). 즉, 동해는 수심에 따라 다양한 해수가 존재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순환을 보인다. 따라서 수심에 따라 해수를 표층수, 중층수 및 심층수로 구분하고, 이들의 순환은 표층 순환, 중층 순환, 심층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층 및 심층수의 순환이 동해 전체 해수의 순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

동해의 표층은 크게 북쪽의 냉수역과 남쪽의 난수역으로 구분하며 동한 난류 및 북한 한류가 큰 영향을 미친다. 중층과 심층은 동해 고유수가 몇 개의 수괴로 나뉘어 순환하고 있다. 그 밖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주변의 해저 지형과 해류의 순환에 의해 각각 특수한 해수의 흐름이 나타난다.

5) 기후와 생물

(1) 독도의 기후

① 기후인자

독도 및 울릉도 주변 해역은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

서 일본을 향해 바람이 불고, 여름철에는 약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한다. 독도 근해에는 동중국해에서 시작하여 남해안과 대한 해협을 지나 동해로 흐르는 북동향의 대만난류인 흑조류의 영향으로 온난다습하다. 독도는 연중 표층수온이 9~26°C인 난류수역에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자연산 전복은 남획으로 자취를 찾기 힘든 상태다. 독도는 조업활동이 계속돼온 울릉도 연안보다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해역으로 알려졌다.

독도 근해는 북측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 계통의 물과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서로 만나면서 전선이 형성되는 해역으로, 해황변동은 어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도 연근해 표면수온은 3~4월에 10°C 정도로 가장 낮고, 8월에 25°C 정도이다. 표층수의 염분농도는 33~34‰로 비교적 높고, 표층 용존 산소량은 6.0 ml 정도이며, 투명도는 17~20m로 해수 유동이 좋아서 수질이 잘 보존된 청정해역이다.

여기에 한류, 난류가 교차하므로 플랑크톤이 많아서 독도 연근해에는 물을 따라 돌아다니는 회유성(回遊性) 어족이 풍부하다. 어획 대상으로는 오징어가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등이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② 기후요소

독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지역으로 난류의 영향으로 온난다습하고, 연중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많아 강수량이 많으며, 바다에 끼는 안개인 해무(海霧)가 자주 끼어 맑은 날씨를 보기 어렵다. 독도의 겨울철(1월) 평균기온은 1°C, 여름철(8월) 평균기온은 23°C를 나타내며, 연평균기온은 12.2°C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24mm인데 연중 고루 분포하여 일년 가운데 맑은 날이 겨우 57일에 불과하다. 안개가 많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이나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고 폭설이 많이 내린다.

독도의 기반암은 물이 잘 빠지는 화산암(火山岩)으로 되어 있어 지하수를 저장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월평균 기온이 연중 0°C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없다.

독도 및 울릉도 주변 해역은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서 일본을 향해 바람이 불고, 여름철에는 약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은 겨울에는 북동풍이 주로 불고, 여름에는 남서풍계가 우세하다. 바람의 출현 비율은 NNE~ENE가 33%, SSW~SW가 30%를 나타낸다. 평균풍속은 초당 4.3미터이고 최대풍속은 초당 34.7미터 정도이다.

(2) 독도의 육상생태계

섬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종은 인접한 대륙으로부터 바다, 하천 등의 수역을 통하여 이동한 것이거나 날아 온 것들이다. 섬의 식물과 동물은 지리적으로 유사한 대륙지역보다 종수가 적고, 형태나 생태에서 본토의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보인다. 섬의 생물은 지리적 변이가 일어나기 쉬우며, 생물 지리적으로 볼 때 본토에서는 이미 절멸된 종이 오랫동안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신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유존종의 비율이 높으며 고유종도 많이 분포한다.

식물상(植物相 flora)은 어떤 지역에 분포, 생육하는 식물의 종류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생물종은 동물 18,029종, 식물 8,271종, 미생물 등 기타 생물이 3,528종으로 모두 29,828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관다발식물은 모두 4,200여 종으로 이는 전 세계 관다발식물의 약 2%에 이른다.

현재까지의 문헌에서 독도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식물 가운데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아서 절멸된 것으로 보이는 종류는 질경이, 바위수국, 곰딸기, 큰줄방제비꽃, 개머루로 나타났다. 이외에 문헌에는 나타나지만 분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종류는 총 10과 19속 19종 3변종 등 22종류로 이 중 많은 수가 잘못 동정하여 독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잘못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도에는 벼과 식물이 15종류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국화과 식물로 11종류가 살고 있다. 독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살고 있는 식물 종류가 매우 적어서 km^2 당 살고 있는 식물의 종류는 2.7종류에 불과하다. 이웃에 있는 울릉도가 평균 6.8종류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값이다. 이는 독도가 화산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섬으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의 면적이 작아서 환경 조건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도에 살고 있는 종류들도 대부분 건조에 강하거나 바닷가의 염분 농도가 높은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염성이 큰 식물들이다.

① 육상식생

식생(植生 vegetation)은 어떤 장소에 자라고 있는 식물 집단을 일컫는 말로 식피(植被), 식의(植衣), 식군(植群)이라고도 한다. 한 지역의 식생은 기후, 토양, 지

형, 생물,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식생은 인위적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자연식생과 대상식생으로 나누어진다. 자연식생(自然植生)은 이론적으로는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식생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고산식생 외에 아고산대의 침엽수림도 자연식생으로 취급된다. 대상식생(代償植生)은 자연식생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위식생으로 바뀐 것으로 마을 주변의 소나무 숲, 길가의 질경이 군락, 바랭이가 많은 밭의 잡초군락 등을 들 수 있다.

독도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가 적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려 와서 살게 된 50~6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서 강한 바닷바람에 잘 적응하며, 잎이 두텁고 잔털이 많아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독도에 살고 있는 식물은 모두 69종으로 돌피군락, 돌피~왕해국 군락, 돌피~섬제비쑥 군락, 섬제비쑥~왕해국 군락 등이 있다. 또 작으나마 술패랭이꽃 군락, 번행초 군락, 왕호장 군락, 땅채송화~왕해국 군락 등도 있다. 나무 종류로는 사철나무와 섬괴불나무가 독도 환경에 적응해 작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한 그루씩 자라고 있다(중앙일보, 2005).

독도에 자라는 식물들 대부분이 울릉도와 공통종으로서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종 구성을 보이고 있다. 독도에 자라는 식물들 중 섬기린초, 섬장대, 섬괴불나무는 울릉도에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도에만 고유하게 분포하는 식물 종류는 알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귀화식물

귀화생물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던 생물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들어와 야생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여 생존할 수 있는 종”이다. 외국에서 들여와 재배되고 있는 종과 의도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직 우리의 자연생태계에 정착하지 못한 좋은 도입종 혹은 외래종이라 한다.

독도에 외래종이 유입된 주된 원인으로 독도경비대원들을 위해 반입되는 부식에 귀화식물의 종자가 붙어 들어가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1973년부터 시행된 조림사업으로 토양반입에 의한 외부종 유입과 조림하는 나무에 붙어 들어가는 종자나 뿌리에 의한 산포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에 의해 유입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종의 잡식이 가장 큰 지역은 독

도접안시설에서 독도경비대 숙소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2004).

③ 나무심기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된 섬과 주변에 78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전체 면적 17만 9,000m² 중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4%인 7,000m²에 불과한 바위섬이다. 1973년 울릉애향회에서 독도에 해송 50그루를 심었다. 이들의 식목활동은 일본이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1979년을 끝으로 일시 중단된다. 외무부는 1980년 초 공문을 통해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독도 나무심기 활동이 새롭게 진행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1989년, ‘푸른독도가꾸기모임’을 결성한 후부터이다. 1989년 4월 회원 50명이 어선을 빌려 독도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독도조림 5개년(1989~1993년) 계획’에 따라 회원들은 해송 등 7종의 묘목 1,780그루와 비료 200부대에다 흙까지 가지고 섬에 들어가 6일 동안 먹고 자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심은 나무들은 대부분 말라 죽거나 토끼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경상북도, 울릉군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풍에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90년과 1991년에는 살아남은 나무에 비료를 주고 유실된 흙을 채우는 작업을 하였다.

④ 해조류

1995년 여름조사에서 녹조류 18종, 갈조류 32종, 홍조류 115종 등 모두 165종의 해조류(海藻類)인 바다풀을 조사하였다. 조류의 경우, 동도에 설치되어 있는 선착장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선착장이 축조된 기반암 주변에는 부착생물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해조류 식생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선착장 주변의 조하대는 기반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면적이 훼손되어 부착생물의 부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포유류와 곤충

독도에 자생하는 포유류는 없고 독도경비대에서 기르는 개가 여러 마리 있다. 1973년에 독도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충은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9목 35과 53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1981년에는 독도장님노린재, 섬땅방아벌레, 어리무당벌레 등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종이 발견되었다. 독도에는 호리꽃등에, 꼬마꽃 등에, 긴꼬리꽃벼룩, 넉점물결애기자나방 등 58종의 각종 곤충이

서식한다(중앙일보, 2005).

⑥ 조류상

1976년 8월 27일 원병오·윤무부의 독도 조류조사에 따르면, 바다제비, 알락도요, 얹도요, 괭이갈매기, 큰유리새, 산술새, 바다직박구리, 긴발톱할미새 등 8종 76개체를 관찰하였다. 이 가운데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는 대부분 남쪽으로 이동 중에 잠시 머무는 기착종인 무리로 보았다.

독도는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 가는 주요 휴식처로 여러 종류의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있는 구원섬(rescue island)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도에는 바다제비, 습새,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22종의 조류가 서식하며 황로, 흑비둘기, 흰갈매기, 까마귀, 노랑발도요, 딱새 등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특히 바다제비, 습새, 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인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습새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괭이갈매기는 동도의 남서 암벽에 2,000~3,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⑦ 해양동물

독도 주변해역은 북쪽에서의 찬 북한한류와 남쪽에서의 따뜻한 대마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이기에 훌륭한 어장이 형성된다. 독도 주변의 주요 어류는 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 볼락 등이며 패류는 전복, 소라, 홍합 등이고,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이고 기타 수산동물은 해삼, 새우, 홍게 등이다.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밝은 불빛이 독도의 밤을 밝힌다.

⑧ 식물지리

독도의 식물상과 식생의 다양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첫째, 독도는 기반암이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사면의 경사가 심하여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둘째, 생물상의 공급원이 되는 육지와 큰 섬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바다가 깊어 과거 기후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연륙교를 통해 생물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육지나 주변 섬으로부터 생물이 해류나 바람을 타고 전파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본다. 드물게 이동하는 새에 의해서 주변으로부터 생물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독도에서는 생물이 이용할 민물이 풍부하지 않고 토양의 발달이 미약하여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고 서

식처도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연히 산포된 식물의 종자가 발아하여 정착하는데 불리하였다. 넷째, 독도 주변은 바다에서 날아오는 소금인 해염(海鹽)이 많고 바람의 세기가 강하여 식물에게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화학적인 피해가 많아 식물의 생육에 유리하지 않았다. 다섯째, 과거 기후변화에 따라 환경이 바뀌었을 때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적어 식물들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여섯째, 나무 종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양의 발달이 더뎠고 주변에 미세 서식지가 만들어지지 못하여 식물이 자라기에 부적당하였다.

2. 인문환경

1) 울릉도 및 독도의 거주의 역사

청동기시대(기원전 1,000~300년) 또는 철기시대 전기(300년~1년)에 울릉도에 최초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던 증거는 북면현포, 남서, 저동리 일대에서 발견된 지석묘, 무문토기, 갈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처음으로 도래한 울릉도인들은 주로 섬의 북서쪽(현포), 남서쪽(남서), 동서(저동)일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울릉도에 육지인이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서기 1세기경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정은 중국 쪽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울릉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등장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지증왕 13년(513년)에 신라의 울릉도 정벌을 단행한다. 우산국을 점령한 신라장군 이사부는 현재의 강릉인 아슬라(俄瑟羅)주의 군주였으며, 당시에는 동해안 일대에 출몰하는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이병후, 2003, 249). 이 정벌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가 신라에 편입되었으며, 오늘날 강릉인 명주의 정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작은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신라와 말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이병후, 2003, 249), 위치동이전에 나타나는 고구려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기록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고구려와의 왕래보다는 신라와의 왕래가 더 많았을 것을 추정할 수 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태조 때부터 울릉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고려사에 자주 등

장한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태조 13년(930년) 우릉도(芋陵島)라고 울릉도가 기록되어 있고 공물을 바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종 9년(1018년) 여진 해적의 침략을 받아 육지로 피신해 와서 돌려보낸 적이 있고, 현종 13년(1022년)에도 여진의 습격을 받아 주민들이 육지로 피난한 적이 있다(김태원, 2003, 330~331). 고려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울릉도는 적어도 고려 현종 때 여진족의 침입으로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불교유물과 그 밖의 유적으로 보아 통일신라기에서 고려 현종 때까지는 한반도와 관련되어 동해의 해상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말에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이 심해졌고, 왜구는 울릉도와 독도지역까지 침탈하여 이 지역이 한때 왜구의 소굴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 아래로 강력한 공도화 정책으로 무인도화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태종 16년에 김인우는 “무릉도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사람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들이 이 섬으로 도망가며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왜구가 쳐들어와 그것으로 인해 강원도까지 침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는 더욱 확고하게 공도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도화에도 불구하고 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왜구의 영향력도 커지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19년(1693년)에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동해, 울산 어민 40여명과 일본 어부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693년 안용복의 입도이후 울릉도 및 독도의 영유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왜구의 손에 울릉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이른다. 1664년 숙종 20년 조선에서는 정시순찰을 실시하고, 1696년에는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를 하여금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시키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다시 관리가 느슨해지고 이를 틈타 19세기에 오면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상륙하여 벌목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인의 불법거주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 조선정부에 의해 공도정책이 폐기됨으로써 울릉도지역은 본격적인 개척의 시대가 열렸다. 당시 조선정부에선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여 현지로 파견해서 지형과 울릉도의 방어와 수호의 문제에 대해 조사시켜 그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1882년(고종 19년) 6월에는 영의정 홍순목의 울릉도 개척 건의를 받아들여 공도정책을 철폐하고 6월 5일에 개척령을 내림으로써 근대에 와서 본격적인

이주와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도장(島長)을 두어 다스리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1884년에는 삼척영장으로 하여금 울릉도첨사를 겸하게 하였고 1885년에는 도감(島監)을 설치하는 등 점점 중요성이 높아졌다. 마침내 1882년 고종 19년에 공도화정책을 포기하고 이규원 검찰사가 순시현지조사 후 8월 20일에 개척령이 내려진다.

1900년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킴으로서 처음으로 군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군청을 전통적인 중심적인 거주지의 하나이며 육지와의 해로로 연결되는 통로였던 태하동에 두었다. 현재의 도동으로 이전한 것은 1903년(광무 7년)으로 당시의 주민은 1,700여명이었으며, 일본인은 144명이었다. 이때부터 울릉도의 중심지역은 도동이 되었으며, 도동인근의 지역들인 사동과 저동이 연결되면서 차례대로 발전해나갔다. 한편, 독도에서의 거주의 역사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인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신라 장군 이사부의 정벌시의 우산국에 독도의 포함 여부도 논쟁이 되지만, 조선시대부터는 독도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우산국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2) 울릉도의 인구

(1) 인구의 변동추이

신라이후 조선시대 고종에 의해 개척령이 내려지기까지 울릉도의 인구는 수백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라시대 우산국이 있었다고는 하나 족장정도가 지배하는 매우 적은 소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전자료에 의하면, 조선정부에 의해 1882년에 개척령이 내려지고 본격적으로 울릉도가 개척되기 이전에는 약 30명 정도의 작은 집단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882년 전후한 시기에 벌목을 위한 일본인들의 입도가 많아지면서 일본인을 포함하여 불법거주 인구의 규모가 200여명에 이르렀다.

1883년 54명의 개척단이 도착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884년 이후에 울릉도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면적에 비하여 생산되는 산물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김태원, 2003, 354). 하지만 여전히 교통의 불편함으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899년의 조사에서 울릉도의 인구는 2,000여명으로 조사된바 있고, 1900년 울릉도는 호

구 520호에 인구는 2,500명이었다(송병기, 110~111).

김태원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울릉도의 인구추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04년에는 80호에 인구가 260명이었는데, 5년 후인 1909년에는 702호로 4995명으로 인구가 급성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1911년에 1,040호에 인구 6,490명으로 증가하여 1912년에는 1,912호에 6,802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일본인은 1903년에 가구는 63가구였는데, 1909년에 190가구, 1912년에는 630가구로 인구는 2,018명이 되어 2천명을 넘어서게 된다.

1912년 울릉도에서 거주지별로 보면 조선인들은 주로 해안을 떠나 내륙이나 계곡같은 대지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주로 해안가에서 거주하였다. 통계상 일본인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19년으로 349가구에 1,247명이나 되는데 전체인구 9,633명의 12.9%에 이른다. 1920년에는 한국인은 8,141명, 일본인은 227가구에 800명이었다. 최초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25년에는 9,992명에 이르러 인구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하였다. 이때의 울릉도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임산자원의 적출과 어업기지화와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1925년에는 한국인 1,485가구에 7,040명의 인구였으며 일본인은 163가구에 560명이었다. 일제시기동안 일본인은 주로 어업이 용이한 천혜의 포구인 도동이나 태하동에 모여 살았으며, 조선인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내륙에 정착지가 많았다. 1929년에는 한국인 9,326명, 일본인 476명 총 9,722명이었으며, 1942년에는 14,13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로 역사적 변동을 거치면서 인구의 증감을 경험하였으나 현재의 인구가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울릉도의 인구수용능력이나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 보아서 울릉도의 적정인구나 최대수용인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를 보면 꾸준히 인구가 성장하여 1970년에 23,248명, 1975년에 29,199명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의 이러한 인구성장은 육지와의 연결 해상교통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 오징어잡이로 인한 수입이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1976년의 인구는 27,468명으로 이때부터 울릉도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도시화율이 50%를 넘어가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울릉도의 경우 이때부터 급격한 이촌향도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울릉도의 인구는 인구 2만 명 아래로 급속히 떨어진다. 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육지와의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해짐으로서 울릉도

인구의 육지로의 이동이 보다 용이하여 탈(脫)울릉도가 가속화되었을 것을 보이며, 특히 젊은 학생층의 섬에서 육지로의 이동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의 변화

울릉도는 다른 도서지방과 달리 1930년대 통계이후 지속적으로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는 독특한 곳이다. 울릉도가 다른 지방과 달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도서의 어촌지역이 갖는 특수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구성은 울릉도가 어업이 발달하여 오징어잡이 등을 위한 남성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릉도 인구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70년까지는 전형적인 다산다사형의 피라미드형에서 1980년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유년층의 인구가 먼저 줄고, 1990년대에는 방추형으로 변화하였고, 2000년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유년인구가 거의 없어 인구가 줄어드는 거의 역삼각형으로 변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청장년층이 두드러지게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령화이후에도 여전히 어업활동에 종사할 청장년층의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령별 구조를 통해 볼 때, 울릉도 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을 지나면서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울릉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1993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에 이르며, 2000년에는 317만명(6.8%), 2001년부터는 7%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과 비교된다.

(3) 산업별 인구구성 및 인구분포

울릉도의 개척이후 중심산업은 주로 어업이 담당해왔다. 1976년의 울릉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인구는 22%이다. 그런데 어업인구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곳은 저동, 남양, 천부, 협포 등의 포구들이며,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나리동, 천부동 일부, 협포동 일부, 남양동, 남서동, 사동 등에서 이루어졌다.

1985년의 울릉도의 산업별 인구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전자는 주로 어업과 농업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후자는 관광업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68.1%는 도동과 저동이 속한 울릉읍에 거주하며, 도동은 울릉도의 중심지이다. 울릉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심하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은 까닭은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 도동과 저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동과 목호, 후포, 포항간에 여객선이 운항되며 울릉도는 수산업 이외에 관광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권혁재, 1995).

3) 울릉도의 산업

(1) 농업과 임업

울릉도는 나리분지가 유일하게 넓은 평지이고 대부분이 산지이다. 경지율이 16%에 이르지만 논은 아주 적고 거의 전부가 밭이며, 섬으로서는 경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사지를 모두 밭으로 개간하였기 때문이다(권혁재, 1995, 506). 그리고 울릉도는 기반암이 화산암이기 때문에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고 경사가 급하여 나리분지를 제외하고는 논으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밭작물이 주를 이룬다.

1970년대를 보면, 울릉도 주민은 생계를 오징어잡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농산물로는 감자, 옥수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약간의 쌀, 보리, 콩 등과 약초, 마늘 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식량은 본토에서 들여왔다. 이는 1970년대 울릉도가 어업전진기지가 되면서 농업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어업종사인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농업인구 축소는 농업적 생산의 관심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종래의 밭작물 중심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시장을 겨냥한 소사육이나 취나물 등의 산채의 재배가 크게 성장하였다. 한편 산악지대이므로 축우, 양잠, 약초 재배를 하며, 1970년대 이후 상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다.

울릉도의 삼림은 그 명칭만큼이나 매우 울창하였던 것 같다. 1880년대에 시작된 개척당시에는 삼림이 울창하여 통행이 불편하였다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1900년대에 오면 삼림의 별채와 화전개간으로 삼림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조선시대 이후로 울릉도의 삼림을 많이 벌채하여 삼림의 황폐화를 가져왔는데,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반출한 나무는 규목, 황백송, 향목, 감탕나무 등

이었다. 그런데 울릉도의 삼림은 다른 한편으로 땔감용 신탄으로 섬외부로 반출하면서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임야가 황폐화되었다.

(2) 어업

울릉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관계로 주요 산업은 수산업으로서 주민의 약 50%가 수산업에 종사하며, 군 총생산액의 84%를 차지하고, 1990년 어가 인구율은 33.8%였다. 주요 어종은 오징어, 명태, 꿩치 등이며, 이들 중 약 95% 이상이 오징어이며, 나머지 5%정도가 꿩치를 포함한 그 밖의 어패류이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362).

울릉도의 오징어잡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난류성의 어종인 오징어는 큐슈 남단을 따라 북상하다가 울릉도 근해에서 회유하기 시작하여 7~8월에는 성어기를 이룬다. 오징어는 주간에는 수심 1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 있다가 야간에는 표층에 가까이 떠올라 활동하므로 주로 야간어로 작업을 한다.

2005년의 경우, 주요 어종별 어획량은 오징어가 전체 물량의 40%에 이르는 3천234t(91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개 1천11t(117억여 원), 청어 771t(3억4천 800만 원), 가자미 571t(31억여 원), 복어 278t(17억여 원), 문어 239t(28억여 원), 붉은대게 172t(9억4천여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울릉도는 섬 전체에 걸쳐서 크고 작은 어항들이 있다. 도동, 저동, 천부, 현포항 등 울릉읍과 북면 지역은 어느 정도의 항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태하, 남양, 통구미지역은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은 1977년부터 교통선이 접안하게 되어 수상교통의 중심이 되었다. 한때 도동이 가장 큰 어항이었으나 방파제의 건설로 1980년부터 이에 인접한 저동이 주요 항만이 되었다. 즉 1980년 저동항이 동해어업종합기지로 완공되었으며, 100톤급 이상의 어선 200여 척의 선박이 가능한 울릉도내의 최대의 어항이다.

(3) 교통의 발달과 관광업의 발달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최초의 정기선은 1901년에 취항하였으나 풍랑으로 범선이 파괴되어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1911년에는 부산이나 포항과 연결하는 화물선 범선이 연 5~6회 출항하였는데, 일본과는 연 30~40회 정도 항해하여 울릉도 자원의 수탈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울릉도의 목재와 토산품을 반출하는데 이용되었다.

1980년대에 임원에서 3시간 30분으로 시간단축이 이루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관광객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1980년에 울릉도내 섬 일주도로가 개설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였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363). 그런데 시간거리는 단축되었으나 선박규모로 인하여 폭풍주의보 시에는 운항이 어려워 여전히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자연 환경상 1,000톤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부재한 것도 또한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울릉도의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독도관광으로 인하여 울릉도 자체의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다. 즉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개방전인 2004년도에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1만2천489명이지만 독도가 개방된 지난해에는 18만5천607명만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무려 2만6천882명이나 감소했다.

제2장 사진자료 조사·정리 필요성

1.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의미

울릉도와 독도의 사진을 수집함에 있어서 사실적인 기록은 물론 단편적인 과거의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진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진자료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본 지역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사진자료로 정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수집

울릉도와 독도의 사진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기존의 책들에서 찾을 수 있는 사진들을 스캔하였고 미비한 부분은 새로 촬영하여 보안할 계획이다.

3.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정리

얻어진 자료들은 분야별로 sorting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정리하였다. 이때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지리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목들이나 분류이기는 하나 다분히 주관적임을 밝혀둔다.

4.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 분석 및 평가

울릉도, 독도의 사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단편적이기는 하나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따라서 사진 자료집을 발행할 때에는 분야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자료집 발간에 관한 예산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진자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료집은 고급스럽게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학적인 입장에서 자연지리분야, 인문지리분야, 지도분야,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인물분야, 그림관련 분야,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 기초조사가 주는 시사점

1. 수집된 자료의 분류 및 정리의 필요성

기존에 발행된 사진자료들로부터 정리한 사진들은 그 목록만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부록에 침부하였다.

2. 사진자료정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앞의 연구에서 시범적인 사진 자료집의 편집을 시도하여 보았다.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울릉도·독도에 관한 자료는 7권 정도의 별책으로 발행하려는 연차적인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7권의 자료집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항공촬영 자료집(해저포함 100매)

항공촬영 자료집은 울릉도나 독도를 한 번에 조감할 수 있는 사진자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항공사진 관계를 촬영하는 기존의 사업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때에도 단순한 사진자료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해석까지를 곁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항공사진 자료의 경우도 전체를 포함하는 자료, 부문확대까지를 가능케하는 자료 등이 면밀히 정리되면 좋겠다.

2) 지형자료집(150매)

지형자료집의 경우 섬 전체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항공사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형사진은 야외현장의 공간적인 기록을 정리할 수 있음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지형이라고 해서 노두나 모든 야외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단일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또한 필요하다. 즉 지

형을 한 분야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는 분류체계에 의해 재정리하고 배치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섬 전체를 정리하는 구조지형학적인 입장이던가, 그 외의 기후지형학적인 입장 등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울릉도나 독도의 구조지형학적인 입장으로는 화산활동이나 단층활동과 같은 예가 두드러질 것이다. 기후지형학적인 입장에서는 해안지형이나 풍화지형 그리고 토양형성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역사 자료집(100매)

문화·역사자료 부분은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문화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문화를 지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활동의 총화라면 물론 역사도 이에 포함되나 역사적인 성격이 강한 자료들은 역사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인문 활동 중 의·식·주와 관련되는 사진자료들, 특히 울릉도에서만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현상들은 문화적인 면에서 정리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현상은 울릉도의 기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4) 촌락과 도시 자료집(100매)

‘촌락과 도시의 자료집’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의 거주공간으로서의 촌락과 도시형태가 그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는 도시의 발달이 미약하므로 전통적인 촌락의 비중을 강조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촌락의 발달은 생업과도 직결되며 경제현상과도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촌락의 사진에서는 촌락의 기능, 형태, 발달정도 등이 확인되었으면 하고 도시화는 상업화되는 과정의 전개가 확실하면 좋겠다.

5) 관광·경제 자료집(100매)

관광·경제 자료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유동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화물의 이동을 포함하고 관광지의 입지조건, 크기, 기능 등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에서는 자연경관을 포함한 울릉도만이 갖는 특징적인 면을 강조할 것이 요구된다.

6) 인물·기타 자료집(100매)

여기서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을 포함해서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많은 인적자원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사진이 남아있는 과거 역사적인 인물들은 물론 구체적으로 현재의 생업에 열심인 사람들까지 사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지도자료집(100매)

지도자료집에서는 고지도를 포함한 현재의 각종 지도들까지 사진물로 만들어 보관하자는 것이다. 이때에도 고지도를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시대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국내지도와 외국지도에 각각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채색 관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축척을 참고로 할 수도 있겠다.

연구성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기존의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관하여 앞으로의 활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활용방안은 대 시민 홍보와 학생들에게 사진 자료집을 배부함으로써 애국심등의 가치관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기존 발간 사진자료 분류 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율릉도	독도	기타	총계
자연자리	기후	.	.	2	.	2
	식생	103
	자연경관	동도전경	.	53	.	53
		서도전경	.	21	.	21
		독도전경	.	14	.	14
		율릉도전경	24	.	.	24
		죽도전경	.	.	6	6
		기타	50	25	.	75
	지형	바위	22	45	.	67
		분지	10	.	.	10
		폭포	6	.	.	6
		풍혈	3	.	.	3
		해식동	.	13	.	13
		해식대, 해식애	14	5	.	19
		기타	6	12	.	18
인문자리	경제	도로	9	.	.	9
		산업시설	3	.	.	3
		선착장	3	6	.	9
		어업활동	.	5	.	5
		특산물	17	.	.	17
		항구	20	.	.	20
	관광	.	85	.	.	85
	도시	.	7	.	.	7
	촌락	.	15	.	.	15
	문화역사	각석문	5	3	.	8
		고분	12	.	.	12
		기타	.	.	.	41
		박물관	15	.	.	15
		비석, 표지석	15	13	.	28
		사당	17	.	.	17
		사료	.	27	.	27

		우표	.	6	.	6
		위령제	.	8	.	8
		한국령바위	.	12	.	12
	인문경관	.	4	41	.	45
그림	14	14
지도	53	53
인물	146	146
기타	198	198
계	10	2	389	387	417	1,234

1. 자연지리

1) 기후

번호	제 목	출처
1	용오름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3, 양수산부
2	용오름 2	박인식, 1996, 독도 p75, 대원사

2) 식생

번호	제 목	출처
3	민들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7, 해양수산부
4	감태와 태황, 대형해조숲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0, 해양수산부
5	섬백리향	박기성, 1995, 울릉도 p21, 대원사
6	섬장대꽃과 벌	박인식, 1996, 독도 p30, 대원사
7	술迨뱅이꽃	박인식, 1996, 독도 p30, 대원사
8	얼굴바위와 번행초	박인식, 1996, 독도 p30, 대원사
9	깨까치수영	박인식, 1996, 독도 p31, 대원사
10	깨까치수영무리	박인식, 1996, 독도 p31, 대원사
11	털머위	박인식, 1996, 독도 p31, 대원사
12	섬기린초	박인식, 1996, 독도 p32, 대원사
13	큰두루미꽃	박인식, 1996, 독도 p32, 대원사

14	절벽에 붙은 해국	박인식, 1996, 독도 p32, 대원사
15	독도에서 제일 큰 섬괴불나무와 꽃	박인식, 1996, 독도 p33, 대원사
16	산호	박인식, 1996, 독도 p37, 대원사
17	해초와 패류2	박인식, 1996, 독도 p40, 대원사
18	해초와 패류3	박인식, 1996, 독도 p40, 대원사
19	독도 앞 바다 속 풍경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38, 영진닷컴
20	깨까치수영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21	해국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22	민들레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23	술래랭이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24	도깨비고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25	가지산호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3, 해양수산부
26	모자반군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3, 해양수산부
27	대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3, 해양수산부
28	감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4, 해양수산부
29	조간대의 잘피와 황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5, 해양수산부
30	조수옹덩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5, 해양수산부
31	청각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5, 해양수산부
32	독도의 해조숲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9, 해양수산부
33	대황군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0, 해양수산부
34	감태와 태황, 대형해조숲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0, 해양수산부
35	바다랜드라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3, 해양수산부
36	날개하늘나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2, 해양수산부
37	박주가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3, 해양수산부
38	변행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3, 해양수산부
39	쥐명야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3, 해양수산부
40	섬장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4, 해양수산부
41	천문동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5, 해양수산부
42	애기기린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6, 해양수산부
43	큰개미자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6, 해양수산부
44	팽이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6, 해양수산부
45	개갓냉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7, 해양수산부
46	민들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7, 해양수산부
47	왕호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37, 해양수산부
48	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0, 해양수산부
49	해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1, 해양수산부
50	왕해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2, 해양수산부

51	쇠무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2, 해양수산부
52	마디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2, 해양수산부
53	강아지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2, 해양수산부
54	구절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3, 해양수산부
55	기린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3, 해양수산부
56	털며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3, 해양수산부
57	붉은 가시딸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3, 해양수산부
58	제비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5, 해양수산부
59	왕해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5, 해양수산부
60	섬백리향	박기성, 1995, 울릉도 p21, 대원사
61	섬개야광나무	박기성, 1995, 울릉도 p21, 대원사
62	죽도에서 바라본 섬목과 깍새섬	박기성, 1995, 울릉도 p25, 대원사
63	울릉도의 명물 향나무	박기성, 1995, 울릉도 p31, 대원사
64	호박나무	박기성, 1995, 울릉도 p39, 대원사
65	성인봉 부근의 원시림 1	박기성, 1995, 울릉도 p100, 대원사
66	성인봉 부근의 원시림 2	박기성, 1995, 울릉도 p101, 대원사
67	가두봉과 통구미 사이의 일주도로변에 핀 참나리꽃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42, 넥서스 BOOK
68	태하령 고갯길 주변의 솔송나무 군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8, 넥서스 BOOK
69	삼선암 부근의 바닷가에 곱게 핀 왕해국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90, 넥서스 BOOK
70	너도밤나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38, 넥서스 BOOK
71	나리분지의 어느 민가 근처에서 꽃을 피운 울릉국화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40, 넥서스 BOOK
72	알봉분지 근처의 숲에 자리한 울릉국화, 섬백리향 군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41, 넥서스 BOOK
73	고사리, 고비 등 양치식물이 무성한 성인봉의 원시림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45, 넥서스 BOOK
74	수령이 500년에 이른다는 섬피나무 고목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48, 넥서스 BOOK
75	녹음 짙은 성인봉의 원시림에 핀 섬말나리꽃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49, 넥서스 BOOK
76	죽도 북서쪽 해안절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76, 넥서스 BOOK
77	북서쪽 전망대 주변에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80, 넥서스

	꽃을 피운 섬바다	BOOK
78	독도의 남쪽 해안절벽 위에 자리한 후박나무숲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81, 넥서스 BOOK
79	동도의 갯바위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땅채송화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95, 넥서스 BOOK
80	11월초 만개한 울릉도 동백꽃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20, 넥서스 BOOK
81	섬바다 줄기의 하얀즙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33, 넥서스 BOOK
82	덕신~산포 해안도로변의 해국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2, 넥서스 BOOK
83	울릉도의 식생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6, 한림미디어
84	두눈을 가득채우는 울릉 유채꽃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 한림미디어
85	울릉도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는 바로 진달래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 한림미디어
86	산길에 가득 편 새하얀 야생화가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 한림미디어
87	나리의 원시림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52, 한림미디어
88	삼림욕장으로도 그만인 나리의 원시림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2, 한림미디어
89	자잘한 보라색 꽃이 귀여운 섬백리향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7, 한림미디어
90	사랑스런 꽃잎과 쌈싸례한 향기로 사랑받고 있는 울릉국화 군락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7, 한림미디어
91	울릉도자생식물1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8, 한림미디어
92	울릉도자생식물2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8, 한림미디어
93	울릉도자생식물3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8, 한림미디어
94	울릉도자생식물4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8, 한림미디어
95	너도밤나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9, 한림미디어
96	눈 속에서 새싹을 틔우는 명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8, 한림미디어
97	울릉도의 왕해국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 예나루
98	울릉도의 울창한 숲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2, 예나루
99	독도해국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7, 예나루
100	섬괴불나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9, 예나루
101	술迨랭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9, 예나루
102	섬기린초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9, 예나루

103	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9, 예나루
104	나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7, 예나루
105	독도에 심어진 나무가 눈보라 속에서 동백꽃을 피워냈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8, 예나루

3) 자연경관

(1) 동도전경

번호	제 목	출처
106	서도에서 본 동도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8, 해양수산부
107	서도의 해식대에서 바라본 동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1, 해양수산부
108	서도에서 본 동도의 봄	박인식, 1996, 독도 p44, 대원사
109	서도에서 본 동도의 여름	박인식, 1996, 독도 p54, 대원사
110	서도에서 본 동도의 가을 1	박인식, 1996, 독도 p60, 대원사
111	서도에서 본 동도의 가을 2	박인식, 1996, 독도 p61, 대원사
112	서도에서 본 동도의 겨울	박인식, 1996, 독도 p62, 대원사
113	삼형제굴바위에서 바라본 동도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9, 해양수산부
114	삼형제굴바위에서 바라본 동도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9, 해양수산부
115	탕걸봉에서 바라본 동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5, 해양수산부
116	서도에서 본 동도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9, 해양수산부
117	촛대바위 옆에서 바라본 동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1, 해양수산부
118	새벽 2시, 동도의 전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0, 해양수산부
119	흐린날 구름 틈새로 빛을 받고 있는 동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1, 해양수산부
120	선착장에서 올려다 본 동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1, 해양수산부
121	동도의 우측에서 올려다본 동도의 위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5, 해양수산부
122	가파른 동도 정상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5, 해양수산부
123	서도에서 본 동도 전경 3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91, 넥서스 BOOK
124	독도의 동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7, 예나루
125	동도 전경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5, 예나루
126	동도 상공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3, 예나루

(2) 서도전경

번 호	제 목	출 처
127	동도에서 본 서도	박인식, 1996, 독도 p21, 대원사
128	동도에서 본 서도의 일몰	박인식, 1996, 독도 p90, 대원사
129	서도의 전경과 해국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24, 영진닷컴
130	눈이 내린 서도의 모습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3, 영진닷컴
131	동도 정상에서 본 서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50, 선
132	물개바위쪽에서 바라본 서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44, 선
133	서도전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22, 해양수산부
134	파도와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1, 해양수산부
135	동도의 선착장에서 바라본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9, 해양수산부
136	동도에서 본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4, 해양수산부
137	동도 정상에서 본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5, 해양수산부
138	일몰과 서도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7, 해양수산부
139	일몰과 서도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7, 해양수산부
140	서도전경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4, 예나루

(3) 독도전경

번 호	제 목	출 처
141	독도전경 1	박인식, 1996, 독도 p6, 대원사
142	독도전경 2	박인식, 1996, 독도 p16, 대원사
143	가제바위에서 본 동도와 서도	박인식, 1996, 독도 p19, 대원사
144	오징어잡이 집어등 불빛에 드러난 독도	박인식, 1996, 독도 p59, 대원사
145	독도의 일출1	박인식, 1996, 독도 p88, 대원사
146	독도의 일출2	박인식, 1996, 독도 p89, 대원사
147	푸른 독도 가꾸기를 위한 정성의 손길	박인식, 1996, 독도 p136, 대원사
148	독도 앞바다에서 본 전경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28, 영진닷컴
149	독도전경 3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50, 영진닷컴
150	독도전경 4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70, 영진닷컴
151	독도전경 5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2q, 영진닷컴

152	한반도와 함께 해온 독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26, 영진닷컴
153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의 활동으로 돌섬이었던 독도가 푸른 옷을 입었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80, 영진닷컴
154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독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 선
155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3, 선
156	거친 파도 위에 조용히 솟은 섬 독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75, 선
157	독도전경 6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20, 해양수산부
158	거친 파도 위에 솟은 섬, 독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23, 해양수산부
159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독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23, 해양수산부
160	울릉도가 보이는 독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9, 해양수산부
161	독도의 일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9, 해양수산부
162	동도의 가파른 바위산과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6, 해양수산부
163	파도가 부서지는 동도와 서도 사이 해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7, 해양수산부
164	독도전경 7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82, 넥서스 BOOK
165	수심 10m 내외의 얕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도와 마주보는 서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06, 넥서스 BOOK
166	독도는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풍광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47, 한림미디어
167	수백만 년 전 용암의 분출로 태어난 독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52, 한림미디어
168	오랜 세월의 풍상을 흘로 견뎌온 독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55, 한림미디어
169	세계적으로 특이한 지질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독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61, 한림미디어
170	독도전경 8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 예나루
171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 예나루
172	독도 강해선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0, 예나루
173	안개 속에 자리잡은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4, 예나루
174	눈쌓인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5, 예나루

175	한국산악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9, 예나루
176	독도전경 9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0, 예나루
177	독도전경 10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2, 예나루
178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4, 예나루
179	태풍 속의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1, 예나루
180	동도와 서도 전경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2, 예나루
181	독도전경 1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5, 예나루
182	독도의 밤하늘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5, 예나루
183	어민속소불빛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7, 예나루
184	독도전경 1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6, 예나루
185	섬전경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2, 예나루
186	독도전경 1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7, 예나루
187	독도는 말한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1, 예나루
188	독도 앞바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6, 예나루
189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8, 예나루
190	독도전경 14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40, 예나루
191	독도전경 15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4, 예나루
192	독도전경 16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4, 예나루
193	독도전경 17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5, 예나루

(4) 울릉도전경

번 호	제 목	출 처
194	동도에서 보이는 울릉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5, 선
195	향목령에서 본 초봉, 미륵산, 형제봉	박기성, 1995, 울릉도 p10, 대원사
196	성인봉에서 본 나리동의 가을	박기성, 1995, 울릉도 p14, 대원사
197	현포의 새벽풍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48, 대원사
198	연락선에서 바라본 울릉도 전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107, 대원사
199	바다에서 본 울릉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8, 넥서스 BOOK
200	울릉도 전경 1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42, 넥서스 BOOK
201	울릉도 전경 2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76, 넥서스 BOOK
202	울릉도 전경 3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 한림미디어

203	겨울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 한림미디어
204	해안도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 한림미디어
205	울릉도 전경 4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38, 한림미디어
206	울릉도의 전설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태하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5, 한림미디어
207	울릉도 전경 5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4, 한림미디어
208	울릉도 전경 6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6, 한림미디어
209	만물상전망대가 불러들이는 울릉도의 절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12, 한림미디어
210	내수전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 전망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13, 한림미디어
211	울릉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 예나루

(5) 죽도전경

번호	제 목	출처
212	죽도	박기성, 1995, 울릉도 p112, 대원사
213	내수전마을의 도로 종점에서 바라본 죽도전경	양영훈, 2005, (마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07, 넥서스 BOOK
214	바다에서 바라본 죽도	양영훈, 2005, (마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78, 넥서스 BOOK
215	내수전 전망대에서 바라본 죽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50, 한림미디어
216	죽도의 모습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0, 한림미디어
217	죽도의 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0, 예나루

(6) 기타

번호	제 목	출처
218	황금어장 1	박인식, 1996, 독도 p40, 대원사
219	황금어장 2	박인식, 1996, 독도 p40, 대원사
220	태풍전야	박인식, 1996, 독도 p56, 대원사
221	파도가 밀어 올린 포탄	박인식, 1996, 독도 p114, 대원사
222	독도의 샘물골	박인식, 1996, 독도 p124, 대원사
223	절벽에도 한 그루 나무를	박인식, 1996, 독도 p126, 대원사
224	일차년도 나무심기	박인식, 1996, 독도 p133, 대원사
225	장군바위를 배경으로 한 독도의 일출	박인식, 1996, 독도 p140, 대원사
226	독도 앞바다의 일출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23, 영진닷컴

227	독도는 우리땅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40, 영진닷컴
228	독도 접안 시설을 통해 가는 정상 길목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60, 영진닷컴
229	뗏목에서 바라본 동해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82, 영진닷컴
230	석양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94, 영진닷컴
231	독도의 일출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6, 영진닷컴
232	비파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36, 선
233	커다란 파도가 부서지는 동도와 서도 사이 해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29, 해양수산부
234	일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0, 해양수산부
235	서도에서 바라본 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0, 해양수산부
236	독립문바위 옆 간이 선착장 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2, 해양수산부
237	천장굴과 독립문바위로 내려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2, 해양수산부
238	독립문바위 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2, 해양수산부
239	물골 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7, 해양수산부
240	물골 입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7, 해양수산부
241	물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7, 해양수산부
242	도동항의 해돋이	박기성, 1995, 울릉도 p28, 대원사
243	태하령에서 보는 현포령 일대	박기성, 1995, 울릉도 p52, 대원사
244	추산리에서 바라본 송곳산	박기성, 1995, 울릉도 p98, 대원사
245	초저녁의 통구미	박기성, 1995, 울릉도 p116, 대원사
246	행남등대로 가는 산길의 암벽에서 바라본 도동항 부근의 해안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4, 넥서스 BOOK
247	독도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도동항 부근의 겹푸른 바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31, 넥서스 BOOK
248	성인봉에서 흘러내린 산자락과 사동리 일대의 겨울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32, 넥서스 BOOK
249	망향봉 정상에서 바라본 사동리 해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34, 넥서스 BOOK
250	사동리의 옛 헬기장에서 바라본 별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38, 넥서스 BOOK
251	통구미포구의 뭉돌해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43, 넥서스 BOOK
252	남서리 일몰전망대에서 맞이한 해넘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0, 넥서스 BOOK
253	눈 내린 현포령을 넘어가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72, 넥서스

	만난 풍경	BOOK
254	남서리 일몰전망대에서 맞이한 해넘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50, 넥서스 BOOK
255	눈 내린 협포령을 넘어가다 만난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72, 넥서스 BOOK
256	협포리 해안도로 아래의 몽돌해변과 겹푸른 바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75, 넥서스 BOOK
257	송곳산과 공암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78, 넥서스 BOOK
258	북면 바닷가에 우뚝 솟은 송곳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80, 넥서스 BOOK
259	죽암마을에서 맞이한 저녁노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92, 넥서스 BOOK
260	삼선암 부근의 일주도로에서 맞이한 해돋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96, 넥서스 BOOK
261	석포마을 진입로에서 바라본 북면 해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00, 넥서스 BOOK
262	만추의 석포~내수전 옛길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05, 넥서스 BOOK
263	내수전마을 앞의 서정미 넘치는 바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08, 넥서스 BOOK
264	성인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46, 넥서스 BOOK
265	팔각정에의 상쾌한 조망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1, 넥서스 BOOK
266	안평전코스의 돌산에서 굽어본 사동리해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3, 넥서스 BOOK
267	삼선암 근처를 향해하는 유람선에서 바라본 북면해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72, 넥서스 BOOK
268	통구미와 남양 사이의 해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21, 넥서스 BOOK
269	무릉계곡의 가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0, 넥서스 BOOK
270	추암해변의 해돋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0, 넥서스 BOOK
271	어달동 해안도로변의 겨울 바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1, 넥서스 BOOK
272	일주도로에서 본 추산일가 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7, 넥서스 BOOK
273	포항 앞바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30, 한림미디어

274	나리에서 성인봉으로 가는 오솔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6, 한림미디어
275	바다를 향해 달리는 저동 능선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55, 한림미디어
276	사동항의 이국적인 모습을 끼고 달리는 사동 능선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57, 한림미디어
277	맑은 바다에 맞닿아 있는 행남산책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5, 한림미디어
278	저동능선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1, 한림미디어
279	내수전 계곡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6, 한림미디어
280	군데군데 동굴이 드러나 있는 사동산책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0, 한림미디어
281	풀리코스터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찻길을 한참 달려야 낳을 수 있는 사동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0, 한림미디어
282	웃통구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2, 한림미디어
283	국내 유일의 향나무 자생지를 갖고 있는 아랫통구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3, 한림미디어
284	우해왕과 풍미녀의 애달픈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비파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6, 한림미디어
285	남서리고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찬물내기 샘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7, 한림미디어
286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섬목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8, 한림미디어
287	독특한 모양의 관음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1, 한림미디어
288	우해왕과 풍미녀의 전설을 품고 있는 비파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 예나루
289	송곳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 예나루
290	시마네현 오끼도 해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3, 예나루
291	독토리현 아카자키 해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6, 예나루
292	도동전경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9, 예나루

4) 지형

(1) 바위

번 호	제 목	출 처
293	우리나라 지도모양의 동도바위사면	박인식, 1996, 독도 p15, 대원사
294	탕건봉 1	박인식, 1996, 독도 p24, 대원사
295	동도의 독립문바위	박인식, 1996, 독도 p20, 대원사
296	탕건봉 2	박인식, 1996, 독도 p24, 대원사
297	장군바위	박인식, 1996, 독도 p28, 대원사
298	동도 정상에서 본 촛대바위	박인식, 1996, 독도 p29, 대원사
299	촛대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22, 영진닷컴
300	삼형제굴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25, 영진닷컴
301	독도가 한반도 땅임을 독도 스스로 증명하는 동도의 지도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28, 영진닷컴
302	독도의 얼굴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29, 영진닷컴
303	독도의 동기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29, 영진닷컴
304	서도의 큰 가재바위(물개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30, 영진닷컴
305	동도의 독립문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31, 영진닷컴
306	삼형제굴바위와 갈매기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39, 영진닷컴
307	서도와 삼형제굴 바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35, 선
308	사자바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34, 선
309	얼굴바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91, 선
310	촛대바위와 해경함정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46, 선
311	서도와 삼형제굴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28, 해양수산부
312	썬플라워호와 물개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3, 해양수산부
313	탕건봉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6, 해양수산부
314	서도 정상부에서 내려다 본 텡건봉과 물개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7, 해양수산부
315	군함바위와 상장군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8, 해양수산부
316	코끼리바위 위를 나는 물수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2, 해양수산부
317	삼형제굴바위 위를 나는 맹금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4, 해양수산부
318	관음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6, 해양수산부
319	삼형제굴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8, 해양수산부

320	닭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4, 해양수산부
321	방어잡이 배와 촛대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1, 해양수산부
322	멀리 보이는 삼형제굴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6, 해양수산부
323	풍화와 침식이 된 바위와 삼형제굴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7, 해양수산부
324	촛대바위와 해경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4, 해양수산부
325	얼굴바위의 다양한 지층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6, 해양수산부
326	얼굴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77, 해양수산부
327	얼굴바위와 독도 등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0, 해양수산부
328	독립문바위 전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6, 해양수산부
329	동도 정상부위 가파른 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6, 해양수산부
330	동도와 서도의 날카로운 바위주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1, 해양수산부
331	독립문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4, 해양수산부
332	독립문바위 일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6, 해양수산부
333	코끼리바위가 늘어선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2, 해양수산부
334	삼선암	박기성, 1995, 울릉도 p22, 대원사
335	도로가에 벼티고 서 있는 장군바위의 위용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72, 한림미디어
336	울릉도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송곳암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75, 한림미디어
337	해안도로에서 바라보는 죽암과 두루봉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43, 한림미디어
338	삼선암에 오르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90, 한림미디어
339	해안도로에서 바라보는 죽암과 두루봉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43, 한림미디어
340	조개바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5, 한림미디어
341	행남산책로 바위틈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5, 한림미디어
342	사자처럼 넘치는 위용과 남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바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9, 한림미디어
343	해안 암봉에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5, 한림미디어
344	투구봉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9, 한림미디어
345	갈매기의 터전이 된 대풍감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5, 한림미디어
346	영락없이 코끼리가 코를 바다에 드리우고 있는 듯한 모습의 공암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8, 한림미디어
347	기기묘묘한 암봉과 암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8, 한림미디어

348	주상절리가 높이 솟아 있는 공암의 뒷모습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9, 한림미디어
349	처음엔 두 개의 바위만 보이다 다가갈수록 세 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경탄을 자아내는 삼선암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5, 한림미디어
350	이사부 장군과 나무사자의 전설을 전하고 있는 사자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 예나루
351	투구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 예나루
352	촛대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6, 예나루
353	삼선암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3, 예나루
354	삼형제굴 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3, 예나루
355	강제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2, 예나루
356	한반도 모양의 풀밭과 돌립문 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85, 예나루
357	얼굴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81, 예나루
358	삼형제굴 바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8, 예나루
359	탕건봉과 갈매기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7, 예나루

(2) 분지

번호	제 목	출처
360	나리분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23, 선
361	풍성하게 내린 눈으로 온통 은세계를 이룬 나리분지의 겨울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28, 넥서스 BOOK
362	울릉도에 가장 넓은 평지인 나리분지의 여름철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32, 넥서스 BOOK
363	알봉분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8, 예나루

(3) 폭포

번호	제 목	출처
364	모시개 저동의 봉래폭포	박기성, 1995, 울릉도 p26, 대월사
365	높이 25m의 3단 폭포인 봉래폭포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19, 넥서스 BOOK
366	섬목과 내수전 사이의 해안절벽에 형성된 폭포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74, 넥서스 BOOK

367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봉래폭포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5, 한림미디어
368	울릉도의 봉래폭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2, 예나루
369	청하골의 쌍생폭포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49, 넥서스 BOOK

(4) 풍혈

번 호	제 목	출 처
370	삼복염천에 에어컨보다 더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풍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81, 넥서스 BOOK
371	풍혈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4, 한림미디어
372	커다란 바위틈 사이로 서늘한 냉풍이 뿜어져 나오는 풍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20, 넥서스 BOOK

(5) 해식동

번 호	제 목	출 처
373	천장굴	박인식, 1996, 독도 p22, 대원사
374	삼형제굴	박인식, 1996, 독도 p23, 대원사
375	상장군바위 옆 해식굴과 바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8, 해양수산부
376	군함바위의 해식굴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9, 해양수산부
377	군함바위의 해식굴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9, 해양수산부
378	다양한 형상의 기암괴석과 해식동굴이 즐비하게 늘어선 만물상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7, 넥서스 BOOK
379	동도의 천장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7, 해양수산부
380	깎아지른 해안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행남해안산책로의 바위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 넥서스 BOOK
381	서도의 해식대에 뚫려 있는 해식굴과 동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50, 해양수산부
382	옛날에 해적들의 소굴이었다는 관음쌍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75, 넥서스 BOOK
383	해저동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1, 예나루
384	천장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7, 예나루
385	천장굴 입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5, 예나루

(6) 해식대, 해식애

번호	제 목	출처
386	서도에 난 길과 해식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72, 선
387	탕건봉 하단부 해식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6, 해양수산부
388	촛대바위 해식대와 거친 파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0, 해양수산부
389	북면의 해안 절벽	박기성, 1995, 울릉도 p102, 대원사
390	바람의 언덕 대풍감 절벽 위에서의 장쾌한 조망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69, 넥서스 BOOK
391	칼날처럼 날카로운 대풍감 절벽의 향나무 자생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71, 넥서스 BOOK
392	석양의 불은 빛에 적벽으로 탈바꿈한 현포리 일주도로변의 해안절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75, 넥서스 BOOK
393	새들도 내려앉지 못할 만큼 가파른 송곳산의 암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84, 넥서스 BOOK
394	섬목과 내수전 사이의 해안절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01, 넥서스 BOOK
395	삼선암 근처의 해안절벽 틈새에서 쏟아지는 석간수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89, 넥서스 BOOK
396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수만톤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 사태감 부근의 절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6, 넥서스 BOOK
397	토종향나무의 자생지로도 유명한 대풍감의 깎아지른 절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8, 넥서스 BOOK
398	보기에도 아찔한 급경사의 암벽으로 이루어진 서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0, 넥서스 BOOK
399	웅장한 아름다움으로 이름난 대풍감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49, 넥서스 BOOK
400	울릉도 해안절벽의 석간수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9, 넥서스 BOOK
401	양쪽으로 천길 낭떠러지가 도사리고 있는 대풍감 해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81, 한림미디어
402	바다로 떨어지는 깎아지른 절벽이 아찔한 관음도 해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89, 한림미디어
403	대풍감 아래 혐준한 절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3, 한림미디어
404	환상의 섬 울릉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1, 예나루

(7) 기타

번호	제 목	출처
405	문화구 1	박인식, 1996, 독도 p26, 대원사
406	문화구 2	박인식, 1996, 독도 p26, 대원사
407	태하 황토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01, 선
408	통구미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14, 선
409	수중동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32, 선
410	동도의 원형 봉고 지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4, 해양수산부
411	풍화된 화산석의 틈새로 보이는 등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6, 해양수산부
412	독도의 해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5, 해양수산부
413	독도의 조간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5, 해양수산부
414	날카로운 암벽의 한쪽이 뻣 뚫려 있는 좌안 산책로의 독특한 풍광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 넥서스 BOOK
415	거북바위의 해식동굴에서 본 통구미포구와 향나무 자생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40, 넥서스 BOOK
416	태하리의 황토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1, 넥서스 BOOK
417	오지 중의 오지 왕피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2, 넥서스 BOOK
418	자연암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71, 한림미디어
419	대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황토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78, 한림미디어
420	울릉도의 빙벽은 죽암에서 만날 수 있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01, 한림미디어
421	황토구미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7, 예나루
422	절벽에 자라고 있는 나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6, 예나루

2. 인문지리

1) 경제

(1) 도로

번호	제 목	출처
423	도동대교와 주변의 겨울 풍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82, 대원사
424	해안일주도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0, 넥서스 BOOK
425	몽돌 해변을 옆에 끼고 시원스레 달리는 일주도로의 사동리 구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36, 넥서스 BOOK
426	통구미와 남양 사이의 웅장한 해안절벽 아래를 지나는 일주도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44, 넥서스 BOOK
427	통구미와 남양리 사이 일주도로의 초저녁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46, 넥서스 BOOK
428	죽암마을 초입의 일주도로에서 바라본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86, 넥서스 BOOK
429	추산일가에서 본 일주도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7, 넥서스 BOOK
430	구암터널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67, 넥서스 BOOK
431	구불구불한 산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3, 한림미디어

(2) 산업시설

번호	제 목	출처
432	농협호박엿공장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16, 한림미디어
433	보건의료원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93, 한림미디어
434	독도 인광개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2, 예나루

(3) 선착장

번호	제 목	출처
435	접안 시설과 해경 합정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33, 영진닷컴
436	동도 간이선착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437	선착장건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9, 해양수산부
438	동도 선착장과 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9, 해양수산부
439	동도 선착장과 서도 어민 숙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1, 해양수산부
440	황토구미의 선착장 방조제 풍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57, 대원사
441	불꽃 형상의 바위절벽과 거북바위 사이의 바닷가에 자리한 통구미포구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4, 넥서스 BOOK
442	이국적인 정서의 항구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 한림미디어
443	저동소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0, 한림미디어

(4) 어업활동

번호	제 목	출처
444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우리 어부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36, 영진닷컴
445	독도어장의 고기잡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41, 선
446	물개바위 주변을 지나는 어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32, 해양수산부
447	천부항에 촘촘히 정박한 오징어잡이 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82, 넥서스 BOOK
448	독도 주변 바다에서 조업 중인 고깃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7, 넥서스 BOOK

(5) 특산물

번호	제 목	출처
449	오징어를 말리는 바닷가 풍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12, 대원사
450	남양몽돌해수욕장에서 오징어를 말리는 주민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3, 넥서스 BOOK
451	남양리 오징어 건조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38, 넥서스 BOOK

452	태하의 오징어 견조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38, 넥서스 BOOK
453	농협호박엿공장의 마당에 쌓인 호박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0, 넥서스 BOOK
454	각종 호박 제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0, 넥서스 BOOK
455	호박을 푹 삶는 과정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0, 넥서스 BOOK
456	오징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0, 한림미디어
457	저동 오징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0, 한림미디어
458	오징어 말리는 풍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6, 한림미디어
459	저동의 명물 오징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6, 한림미디어
460	오징어회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6, 한림미디어
461	울릉도호박역 직판장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6, 한림미디어
462	들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울릉도 호박엿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7, 한림미디어
463	오징어 견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0, 예나루
464	오징어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1, 예나루
465	오징어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1, 예나루

(7) 항구

번호	제 목	출처
466	울릉도 도동항의 옛 모습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5, 선
467	울릉도 도동항의 현재모습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5, 선
468	망향봉에서 본 도동항	박기성, 1995, 울릉도 p6, 대원사
469	살구남 능선에서 바라본 도동항	박기성, 1995, 울릉도 p26, 대원사
470	1980년에 준공된 저동항	박기성, 1995, 울릉도 p108, 대원사
471	바다에서 바라본 도동항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7, 넥서스 BOOK
472	망향봉 정상의 독도전망대에서 바라본 도동항의 야경과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8, 넥서스 BOOK
473	촛대바위 옆의 방파제에서 바라본 저동항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12, 넥서스 BOOK
474	오징어잡이 배들이 정박해 있는 저동항의 해돋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16, 넥서스 BOOK

476	살구남에서 바라본 도동항 입구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 한림미디어
477	바다에서 바라본 도동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30, 한림미디어
478	호젓하고 서정적인 이미지의 학포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33, 한림미디어
479	도동항 전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0, 한림미디어
480	맑은 바다를 끼고 있는 저동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1, 한림미디어
481	저동과 성인봉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저동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73, 한림미디어
482	새로운 항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사동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1, 한림미디어
483	거대한 위용 아래 홀로 해안 풍경을 그리고 있는 학포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0, 한림미디어
484	방파제가 길게 누워 있는 울릉도만의 특이한 항구 풍경을 만들어내는 현포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7, 한림미디어
485	현포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항구 풍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15, 한림미디어
486	현포의 어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3, 예나루
487	현포의 오늘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3, 예나루

2) 관광

번호	제 목	출처
488	울릉도 남서일몰전망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41, 선
489	산악인들이 일선암을 오르는 모습	박기성, 1995, 울릉도 p46, 대원사
490	베 짜는 모습	박기성, 1995, 울릉도 p75, 대원사
491	섬 일주 관광유람선	박기성, 1995, 울릉도 p110, 대원사
492	독도전망대로 오르내리는 케이블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30, 넥서스 BOOK
493	검은 봉들이 깔려 있는 남양봉돌해수욕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49, 넥서스 BOOK
494	호텔형객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57, 넥서스 BOOK
495	태하마을의 갯바위 산책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60, 넥서스 BOOK

496	작은 황토구미라고도 불리는 학포마을의 봉돌해변과 만물상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63, 넥서스 BOOK
497	죽암천의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드는 죽암해수욕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89, 넥서스 BOOK
498	죽암마을의 민가와 해수욕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91, 넥서스 BOOK
499	관음도가 빤히 보이는 선창마을 앞의 갯바위낚시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95, 넥서스 BOOK
500	울릉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내수전해수욕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10, 넥서스 BOOK
501	저동항 방파제 바깥쪽의 갯바위 낚시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14, 넥서스 BOOK
502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삼림욕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18, 넥서스 BOOK
503	신장휴게소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21, 넥서스 BOOK
504	너도밤나무숲에 둘러싸인 신령수 샘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42, 넥서스 BOOK
505	해상공원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4, 넥서스 BOOK
506	송곳산과 공암을 뒤로하고 삼선암으로 향하는 유람선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60, 넥서스 BOOK
507	공암 부근에 멈춰선 유람선의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관광객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69, 넥서스 BOOK
508	도동항에 정박한 썬플라워호와 한겨레호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5, 넥서스 BOOK
509	화진해수욕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8, 넥서스 BOOK
510	죽도시장의 고래고기집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9, 넥서스 BOOK
511	사동 횟집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3, 넥서스 BOOK
512	리조트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4, 넥서스 BOOK
513	정면에서 바라본 대아호텔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5, 넥서스 BOOK
514	가요주점내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55, 넥서스 BOOK

515	객실내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5, 넥서스 BOOK
516	커피숍 내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5, 넥서스 BOOK
517	울릉마리나관광호텔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6, 넥서스 BOOK
518	객식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6, 넥서스 BOOK
519	오삼불고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6, 넥서스 BOOK
520	객실 밖 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6, 넥서스 BOOK
521	투막집 객실의 내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57, 넥서스 BOOK
522	바다낚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60, 넥서스 BOOK
523	행남해안산책로변의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62, 넥서스 BOOK
524	가두봉 앞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63, 넥서스 BOOK
525	전세버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70, 넥서스 BOOK
526	렌터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70, 넥서스 BOOK
527	대아호텔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72, 넥서스 BOOK
528	저동항에 정박하고 있는 씨플라워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9, 한림미디어
529	트레일 팀이 본천부를 지나고 있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34, 한림미디어
530	겨울동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59, 한림미디어
531	아치형 등산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61, 한림미디어
532	겨울산 등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67, 한림미디어
533	우리나라에서 백도에 이어 두 번째로 손꼽히는 울릉도의 해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87, 한림미디어
534	울릉도의 다채로운 축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93, 한림미디어
535	인공암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94, 한림미디어
536	도동항 좌안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97, 한림미디어
537	최근에는 사동에서도 볼더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99, 한림미디어

	조금씩 늘고 있다	
538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성인봉 정상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07, 한림미디어
539	등반과 스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10, 한림미디어
540	산악스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13, 한림미디어
541	MTB 자전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15, 한림미디어
542	트레일코스 자전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18, 한림미디어
543	트레일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21, 한림미디어
544	등반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22, 한림미디어
545	내수전 계곡의 다리를 건너는 모습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25, 한림미디어
546	울릉아쿠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34, 한림미디어
547	스쿠버다이빙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35, 한림미디어
548	해상갯바위낚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37, 한림미디어
549	낚시하는 모습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38, 한림미디어
550	카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45, 한림미디어
551	저동 폐러글라이딩 활공장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52, 한림미디어
552	황토굴 암벽을 따라 들어선 태하 해안산책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5, 한림미디어
553	죽암도로에서 본 친부로 접어드는 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0, 한림미디어
554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는 내수전천망대길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11, 한림미디어
555	파라솔 노점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6, 한림미디어
556	손꽃치를 썰어 만든 회무침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41, 한림미디어
557	울릉도 자생 약초와 천연 암반수를 먹고 자라 육질이 연하고 담백한 울릉 약소불고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41, 한림미디어
558	바다에서 갓 따 올린 신싱한 흥합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42, 한림미디어
559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유람선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51, 한림미디어
560	썬플라워호를 타고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 여행객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83, 한림미디어
561	유람선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85, 한림미디어
562	여행지에서는 현지 교통을 이용하여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좋을 듯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89, 한림미디어
563	도동에서 나리분지를 오가는 버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89, 한림미디어

564	4륜구동택시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91, 한림미디어
565	숙박업소 1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92, 한림미디어
566	숙박업소 2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92, 한림미디어
567	숙박업소 3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92, 한림미디어
568	독도방문관광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6, 예나루
569	독도 관광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1, 예나루
570	독도관광과 경비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6, 예나루
571	독도전망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7, 예나루
572	등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5, 예나루

3) 도시(마을)

번호	제 목	출처
573	완만한 산등성이에 민가 몇채가 띄엄띄엄 들어선 서달령마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56, 넥서스 BOOK
574	반달모양의 풍물 해변을 품은 죽암마을 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88, 넥서스 BOOK
575	일제시대 당시 일본 육군이 주둔했던 석포마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02, 넥서스 BOOK
576	설원 위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는 투막집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 한림미디어
577	등산로에서 바라본 해안 풍경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5, 한림미디어
578	햇볕의 마을 남양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4, 한림미디어
579	바다가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는 태하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2, 한림미디어

4) 촌락

번호	제 목	출처
580	나리동의 투막집	박기성, 1995, 울릉도 p18, 대원사
581	투막집 내부 모습	박기성, 1995, 울릉도 p18 대원사
582	저동과 섬목 사이 와달리의 외딴집	박기성, 1995, 울릉도 p32, 대원사
583	나리동에서 성인봉 가는 길에 있는 투막집	박기성, 1995, 울릉도 p88, 대원사

584	나리분지의 너와집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33, 넥서스 BOOK
585	나리분지의 투막집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34, 넥서스 BOOK
586	알봉, 미륵산 등이 호위하듯 우뚝 솟은 알봉분지의 투막집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37, 넥서스 BOOK
587	나리분지에 자리하고 있는 너와집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7, 한림미디어
588	투막집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1, 한림미디어
589	너와집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1, 한림미디어
590	나리분지의 우데기집 내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8, 예나루
591	나리분지의 우데기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8, 예나루
592	너와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9, 예나루
593	움막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3, 예나루
594	울릉도민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3, 예나루

5) 문화역사

(1) 각석문

번호	제 목	출처
595	이규원이 남긴 각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15, 선
596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597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598	동도 간이선착장 준공 기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599	울릉도 남면 독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1, 해양수산부
600	학포마을의 바위에 이규원이 남긴 임오명 각석문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29, 넥서스 BOOK
601	울릉에 남아 있는 옛사람들의 흔적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1, 한림미디어
602	이규원 감찰사가 울릉도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암각 글씨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2, 한림미디어

(2) 고분

번호	제 목	출처
603	방치된 현포 고분군 일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37, 선
604	현포 고분군 10-1호분 내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38, 선
605	위기에 처한 태하리 고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39, 선
606	밭 속에 방치된 천부 고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39, 선
607	남서리 돌무지무덤	박기성, 1995, 울릉도 p50, 대원사
608	남서리의 양지바른 산비탈에 남아 있는 신라시대의 돌무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1, 넥서스 BOOK
609	현포령 고갯길 부근의 완만한 비탈에 자리잡은 옛 무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74, 넥서스 BOOK
610	남서리고분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3, 넥서스 BOOK
611	남서리 고분 1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8, 한림미디어
612	남서리 고분 2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8, 한림미디어
613	현포동에 있는 고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 예나루
614	고분발굴현장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 예나루

(3) 기타

번호	제 목	출처
615	돗토리현에 있는 전념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94 선
616	돗토리현의 아카자키 해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95, 선
617	울릉도에 남아 있는 일제시대 일본가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47, 선
618	극락춤	박기성, 1995, 울릉도 p73, 대원사
619	울릉도에서 출토된 석인상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2, 넥서스 BOOK
620	독도에 무단 침입한 일본인 어부들을 쫓아내는 안용복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7, 넥서스 BOOK
621	울릉도는 대한불교 진각종의 창시자인 소규상 대종사의 탄생지가 있어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3, 한림미디어
622	고구려사에 등장하는 왜구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2, 예나루

623	고구려사에 등장하는 왜구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2, 예나루
624	황희정승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3, 예나루
625	세종대왕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8, 예나루
626	포류조선인들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9, 예나루
627	안용복장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8, 예나루
628	동남제도개척사로 임명된 김옥균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3, 예나루
629	울릉도 개척민들의 힘든 삶을 엿보게 한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7, 예나루
630	뗏목은 울릉도 개척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기도 했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8, 예나루
631	울릉경찰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8, 예나루
632	드미트리 둔스코이호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4, 예나루
633	심홍택군수는 1906년 일본조사단 방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했다. 기념사진을 찍자 대형태극기를 내워 놓고 있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9, 예나루
634	러시아 발틱함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4, 예나루
635	야스쿠니 신사에 전시된 함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5, 예나루
636	장갑선 안에 장치된 일본의 함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5, 예나루
637	한산도대첩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8, 예나루
638	도고제독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0, 예나루
639	쓰시마해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1, 예나루
640	러일전쟁으로 명소가 된 독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4, 예나루
641	일본의 흥망이 걸린 전쟁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6, 예나루
642	독도근해에 나타난 일본순시선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7, 예나루
643	일본 말뚝 제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9, 예나루
644	드미트리호 함장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9, 예나루
645	독도에 투하된 폭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0, 예나루
646	불발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3, 예나루
647	일본 망언 규탄 굿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3, 예나루
648	어린이들의 항의시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2, 예나루

649	조어도를 침탈한 일본 우익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4, 예나루
65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5, 예나루
651	죽도! 돌아오라 섬과 바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2, 예나루
652	시마네현의 독도와 그 바다를 그리워하는 문구가 적힌 간판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4, 예나루
653	울릉도의 장례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0, 예나루
654	독도를 소재로 한 북한 영화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6, 예나루
655	북한답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7, 예나루

(4) 박물관

번호	제 목	출처
666	독도 기념관 모형	박인식, 1996, 독도 p142, 대원사
667	독도의 안내지도, 독도박물관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62, 영진닷컴
668	독도박물관전경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65, 영진닷컴
669	독도박물관 향토사료관에 전시된 일본식 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27, 선
670	개척민의 농민생활자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1, 선
671	어업용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1, 선
672	개척민의 생활용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3, 선
673	향토자료관에 전시된 설피와 섬대로 만든 스키	박기성, 1995, 울릉도 p89, 대원사
674	약수공원 맞은편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독도박물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6, 한림미디어
675	독도전망대에 올라 내려다 본 독도박물관과 도동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9, 한림미디어
676	울릉도 약수공원 안에 세워진 독도박물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59, 한림미디어
677	울릉도에서 출토된 토기류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 예나루
678	향토사료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4, 예나루
679	야스쿠니신사 도고 전시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9, 예나루
680	독도박물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3, 예나루

(5) 비석, 표지석

번호	제목	출처
681	독도 수비대가 세운 펫말	박인식, 1996, 독도 p108, 대원사
682	안용복비석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8, 영진닷컴
683	영해기점표식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6, 영진닷컴
684	독도영토표식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8, 영진닷컴
685	독도박물관 앞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 표시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73, 선
686	독도박물관 앞 안용복 공적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94, 선
687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는 영토표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83, 선
688	독도수비대가 세운 펫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06, 선
689	위치 표지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690	영해기점표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691	위령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0, 해양수산부
692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는 영토표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1, 해양수산부
693	동도의 영토표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5, 해양수산부
694	서도의 영토표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8, 해양수산부
695	안용복장군 충혼비	박기성, 1995, 울릉도 p67, 대원사
696	성인봉 정상에 세워진 비	박기성, 1995, 울릉도 p93, 대원사
697	표석 하나만 둉그러니 세워져 있는 성인봉정상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50, 넥서스 BOOK
698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세워진 대한민국 동쪽땅 끝 표석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09, 넥서스 BOOK
699	수토관의 행적을 기록한 도동리 신묘명 각석문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4, 넥서스 BOOK
700	약수공원의 안용복장군 충혼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7, 넥서스 BOOK
701	이규원 감찰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비각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42, 한림미디어
702	성인봉 정상 표지석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68, 한림미디어
703	울릉도 도동의 안용복장군 충혼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0, 예나루
704	울릉도 개척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2, 예나루
705	독도 표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0, 예나루
706	시마네현 표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3, 예나루
707	시마네현 독도표지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5, 예나루
708	독도경비대 위령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8, 예나루

(7) 사당

번호	제 목	출처
709	성하신당전경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85, 선
710	성하신당 내부의 동남동녀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85, 선
711	산신당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17, 선
712	산신당 내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18, 선
713	황토구미 성하신당 안의 동남동녀상	박기성, 1995, 울릉도 p54, 대원사
714	황토구미의 성하신당	박기성, 1995, 울릉도 p55, 대원사
715	젊고 잘생긴 동남동녀의상을 모셔놓은 성하신당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65, 넥서스 BOOK
716	공도정책의 희생양이되었던 동남동녀를위로하기 위해 세웠다는 성하신당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24, 한림미디어
717	태하령 구암 성황당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3, 예나루
718	도고신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0, 예나루
719	독도 산신당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3, 예나루
720	태하의 성하신당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4, 예나루
721	성하신당의 옛 모습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4, 예나루
722	성하신당에 모셔진 동남동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4, 예나루
723	울릉도의 일본 신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5, 예나루
724	일본인들이 세운 사당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5, 예나루
725	울릉성황당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5, 예나루

(8) 사료

번호	제 목	출처
726	세종실록지리지 독도사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6, 선
72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50, 선
728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50, 선
729	죽도 영토편입에 관한 일본내각결정문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54, 선
730	시마네현고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58, 선
731	1935년 시마네현 지도 뒷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62, 선

	시마네현 관할 지구 설명문	
732	칙령 제41호 제2조가 제재된 대한제국 관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04, 베서스 BOOK
733	삼국사기에 기록된 울릉도에 관한 기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4, 예나루
734	안용복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오카지마의 저술 죽도고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1, 예나루
735	1693년 대마도주가 안용복을 동래부에 인도하면서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록해서 파문을 일으킨 문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2, 예나루
736	라페루즈의 세계탐험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0, 예나루
737	울릉도 도감 교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6, 예나루
738	대한제국칙령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7, 예나루
739	대한제국칙령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7, 예나루
740	수섬이라고 표기된 서도와 암섬으로 표기된 동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8, 예나루
741	일본 군함 니다카호의 행동일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6, 예나루
742	일본외교문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8, 예나루
743	1860년에 그려진 독도의 모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3, 예나루
744	태정관 공문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7, 예나루
745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에 있는 독도 모습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8, 예나루
746	챔버리아와 체로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1, 예나루
747	온주시청합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4, 예나루
748	시마네현 고시 40호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6, 예나루
749	시마네현 고시 40호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8, 예나루
750	요미우리신문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5, 예나루
751	미국독도문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83, 예나루
752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의지를 일본에 알린 SAPIO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9, 예나루

(9) 우표

번호	제 목	출처
753	독도기념우표 5환	박인식, 1996, 독도 p122, 대원사
754	독도기념우표 10환	박인식, 1996, 독도 p122, 대원사
755	독도기념우표 2환	박인식, 1996, 독도 p122, 대원사
756	독도우표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9, 예나루
757	일본의 독도우표와 북한 독도우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0, 예나루
758	독도우표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1, 예나루

(10) 위령제

번호	제 목	출처
759	위령제	박인식, 1996, 독도 p117, 대원사
760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88, 예나루
761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2, 예나루
762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2, 예나루
763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4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2, 예나루
764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5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2, 예나루
765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6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2, 예나루
766	희생자 위령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1, 예나루

(11) 한국령바위

번호	제 목	출처
767	한국령 1	박인식, 1996, 독도 p100, 대원사
768	한국령 2	박인식, 1996, 독도 p101, 대원사
769	독도 의용 수비대원 명부	박인식, 1996, 독도 p106, 대원사
770	한국이란 글씨가 선명한 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3, 영진닷컴
771	한국령바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50, 영진닷컴

772	경비대 앞의 암각된 한국령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02, 선
773	동도 중턱, 희미하게 암각된 한국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1, 해양수산부
774	독도의 암벽에 새겨진 한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1, 해양수산부
775	한국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0, 해양수산부
776	동도 정상의 등대 건물과 그 아래의 암벽에 세워진 한국령	양영훈, 2005, (마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02, 넥서스 BOOK
777	한국령 독도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5, 예나루
778	한국령 독도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7, 예나루

6) 인문경관

번호	제 목	출처
779	물 길러 가는 계단	박인식, 1996, 독도 p125, 대원사
780	민간인 집	박인식, 1996, 독도 p131, 대원사
781	토끼 방어 철망 썩음	박인식, 1996, 독도 p137, 대원사
782	독도경비대 막사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62, 영진닷컴
783	최종덕씨가 직접 쌓아 만든 몰골 가는 계단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17, 영진닷컴
784	몰골 가는 길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17, 영진닷컴
785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36, 영진닷컴
786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72, 영진닷컴
787	방치된 방앗간 흔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9, 선
788	동도 초소 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1, 해양수산부
789	동도 정상에서 독립문 바위로 이어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3, 해양수산부
790	서도 상공을 나는 헬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0, 해양수산부
791	순찰중인 함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90, 해양수산부
792	동키 바위와 운반용 케이블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4, 해양수산부
793	동키 바위와 운반용 케이블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4, 해양수산부
794	동도시설전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5, 해양수산부
795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기념등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6, 해양수산부
796	어민숙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8, 해양수산부
797	해질무렵의 남양리	박기성, 1995, 울릉도 p60, 대원사
798	도동의 악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70, 대원사

799	석산에서 본 저동 일대	박기성, 1995, 울릉도 p94, 대월사
800	가파른 산비탈을 일궈 만든 나팔등마을의 산채밭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48, 넥서스 BOOK
801	성인봉과 나리분지로 스며든 지하수가 용솟음치듯 솟는 용출소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81, 넥서스 BOOK
802	내수전약수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11, 넥서스 BOOK
803	360여개의 계단이 720도로 회전하는 나선형 계단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79, 넥서스 BOOK
804	죽도 정상의 계단이 넓은 밭에는 주로 더덕이 재배된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79, 넥서스 BOOK
805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09, 넥서스 BOOK
806	동도의 가파른 벼랑에 개설된 계단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0, 넥서스 BOOK
807	저동리 깍개등의 비탈밭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9, 넥서스 BOOK
808	남양리의 비파산과 남양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0, 넥서스 BOOK
809	갑작스런 안개에 휩싸인 나리분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20, 넥서스 BOOK
810	1900년대 초의 도동 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30, 넥서스 BOOK
811	행남능선에 바라본 도동 입구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65, 한림미디어
812	살다보면 정이 들어서 떠날 때는 울며 펴난다는 석포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07, 한림미디어
813	나리분지에서 나물을 수확중인 악나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9, 예나루
814	추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5, 예나루
815	청동주전자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6, 예나루
816	어민 숙소의 옛모습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2, 예나루
817	한국해군함정의 위용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8, 예나루
818	독도의 경찰 주둔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9, 예나루
819	독도와 대장헬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8, 예나루
820	배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47, 예나루
821	전투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2, 예나루
822	철조망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6, 예나루
823	독도와 광개토대왕함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1, 예나루

3. 그림

번호	제 목	출처
824	1977. 9. 28 초일봉피 까세 독도그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99, 선
825	독도해도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 해양수산부
826	독도해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 해양수산부
827	독도의 해발고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 해양수산부
828	파랑모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8, 해양수산부
829	암석구성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9, 해양수산부
830	암석구성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9, 해양수산부
831	암석구성 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9, 해양수산부
832	제주도와 울릉도의 형성과정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2, 예나루
833	독도 주변 해저지형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6, 예나루
834	러일전쟁삽화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62, 예나루
835	폭격사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1, 예나루
836	하이드레이트 분자구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1, 예나루
837	항공식별구역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3, 예나루

4. 지도

번호	제 목	출처
83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박인식, 1996, 독도 p69, 대원사
839	삼국접양지도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87, 영진닷컴
840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 1	박인식, 1996, 독도 p78, 대원사
841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 2	박인식, 1996, 독도 p79, 대원사
842	신증동국여지승람 1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68, 영진닷컴
843	신증동국여지승람 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58, 선
844	울릉도 외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21, 선
845	1917년 시마네현 지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61, 선
846	1934년 시마네현 지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61, 선
847	SCAPIN 제 677호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65, 선

	부속지도	
848	팔도총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51, 선
849	강원도 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57, 선
850	동국도(천하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54, 선
851	팔도전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63, 선
852	강원도 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65, 선
853	해좌전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67, 선
854	강원도 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68, 선
855	해발고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 해양수산부
856	단기 이후 제고국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70, 선
857	신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72, 선
858	해동여지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50, 선
859	좌해여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77, 선
860	항공사진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 해양수산부
861	여행정보 1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3, 넥서스 BOOK
862	항공사진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 해양수산부
863	항공사진 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 해양수산부
864	항공사진 4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 해양수산부
865	울릉도, 독도 지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 넥서스 BOOK
866	여행지도 2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27, 넥서스 BOOK
867	죽도 상세지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8, 넥서스 BOOK
868	일주유람선코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9, 넥서스 BOOK
869	독도지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87, 넥서스 BOOK
870	18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첩양지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01, 넥서스 BOOK
871	1946년 미군정청에서 만든 관할지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04, 넥서스 BOOK
872	울릉도섬지도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31, 한림미디어
873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한 대일본급조선청국전도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29, 넥서스 BOOK
874	강원도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49, 예나루
875	라페루즈 탐험대가 작성한 울릉도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1, 예나루

876	라페루즈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2, 예나루
877	이규원이 울릉도 탐사후 제작한 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6, 예나루
878	조선여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55, 예나루
879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8, 예나루
880	마쓰시마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9, 예나루
881	동판조선전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3, 예나루
882	호넷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3, 예나루
883	팔도총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4, 예나루
884	대동여지도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8, 예나루
885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26, 예나루
886	대동여지도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0, 예나루
887	삼국첩양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0, 예나루
888	육지측량부 발행지도 구역일람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1, 예나루
889	대일본분본견신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2, 예나루
890	시마네현 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6, 예나루
891	조선국지리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6, 예나루
892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39, 예나루
893	당빌의 조선왕국 전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0, 예나루
894	조선통해안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42, 예나루
895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45, 예나루
896	일본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42, 예나루
897	신진총계전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48, 예나루
898	보웬 러시아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0, 예나루
899	영국에서 작성한 지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59, 예나루
900	스케핀677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5, 예나루

5. 인물

번 호	제 목	출처
891	어선 위에서 바라본 독도	박인식, 1996, 독도 p34, 대원사
892	독도의용수비대 1	박인식, 1996, 독도 p105, 대원사
893	독도의용수비대 2	박인식, 1996, 독도 p105, 대원사
894	일차년도 나무심기 1	박인식, 1996, 독도 p132, 대원사
895	일차년도 나무심기 2	박인식, 1996, 독도 p132, 대원사

896	이차년도 나무심기 1	박인식, 1996, 독도 p135, 대원사
897	이차년도 나무심기 2	박인식, 1996, 독도 p135, 대원사
898	이차년도 나무심기 3	박인식, 1996, 독도 p135, 대원사
899	환영하는 독도경비대원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3, 영진닷컴
900	독도수영종단 선수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3, 영진닷컴
901	독도는 우리땅을 부를 당시 독도 앞에서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42, 영진닷컴
902	MBC 청소년 음악회에 출연해 울릉도에서 헬기를 타고 독도에 가서 물을 떠온 후 인터뷰를 하는 장면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43, 영진닷컴
903	태극기와 함께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48, 영진닷컴
904	동도전경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56, 영진닷컴
905	처음 독도 땅을 밟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58, 영진닷컴
906	1984년 독도 첫 방문 당시 독도경비대원들과 함께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68, 영진닷컴
907	뗏목 탐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는 장면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79, 영진닷컴
908	뗏목 탐사 중인 대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81, 영진닷컴
909	뗏목을 쳐어 독도땅을 밟음으로써 독도가 우리땅임을 몸으로 증명한 대원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85, 영진닷컴
910	독도땅을 밟은 한 선수가 감격스럽게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92, 영진닷컴
911	도크(안전망)에서 독도를 향해 수영하는 모습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96, 영진닷컴
912	바다수영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99, 영진닷컴
913	독도에 다다르자 선수들이 일제히 물 속에 뛰어들어 독도땅을 밟고 있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5, 영진닷컴
914	독도 땅을 밟은 애국 전사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5, 영진닷컴
915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관의 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14, 영진닷컴
916	독도 최초의 주민 최종덕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15, 영진닷컴
917	1984년 독도 방문 때 최종덕씨의 딸과 함께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16, 영진닷컴

918	최종덕씨와 자녀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18, 영진닷컴
919	오승윤 화백이 그려준 독도 그림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54, 영진닷컴
920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 1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94, 영진닷컴
921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 2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85, 영진닷컴
922	울릉도 개척민 후예들의 모습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26, 선
923	울릉도 삼광호 선원일동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4, 선
924	울릉도 도동 청년단 연극 기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7, 선
925	개척시대 울릉도 도동 약수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37, 선
926	독도의 용수비대 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84, 선
927	독도의 용수비대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184, 선
928	독도의 용수비대원	서기종씨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13, 선
929	수중 촬영중인 다이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4, 해양수산부
930	물리실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931	생물조사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932	생물조사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933	생물조사 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934	채수작업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35	수중조사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36	수중 2,000m 해저에서 채취된 퇴적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37	소형보트를 이용한 조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38	수중조사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39	현장 데이터 수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40	육상지질조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41	정점조사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5, 해양수산부
942	저동항의 아침	박기성, 1995, 울릉도 p35, 대원사
943	내수전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는 울릉도의 아이들	박기성, 1995, 울릉도 p40, 대원사
944	해질 무렵 남양리 바닷가 풍경	박기성, 1995, 울릉도 p77, 대원사
945	성인봉 계곡	박기성, 1995, 울릉도 p80, 대원사
946	오징어 경매가 한창 진행중인 도동항 선창의 아침풍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8, 벡서스 BOOK

947	우안 산책로에서 도동항의 옥빛 바다를 카메라에 담는 관광객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0, 넥서스 BOOK
948	숲 터널을 이를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찬 섬조릿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6, 넥서스 BOOK
949	털머위가 지천으로 깔린 살구남마을 부근의 해송숲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7, 넥서스 BOOK
950	포구에 닿은 배를 물으로 끌어올리는 통구미 마을의 어부 내외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42, 넥서스 BOOK
951	남서터널 부근의 갯바위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2, 넥서스 BOOK
952	남양몽돌해수욕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4, 넥서스 BOOK
953	서달령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태하천에서 탁족을 즐기는 관광객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59, 넥서스 BOOK
954	태하리 골목길에서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64, 넥서스 BOOK
955	황토굴 근처의 아찔한 절벽 위에 설치된 철제계단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66, 넥서스 BOOK
956	송곳산 부근 일주도로변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76, 넥서스 BOOK
957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로 낯선 이를 반겨주는 평리마을의 한 아주머니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77, 넥서스 BOOK
958	죽암마을 부근의 얕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87, 넥서스 BOOK
959	아담한 정자가 세워져 있는 석포쉼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98, 넥서스 BOOK
960	석포~내수전 옛길에서 만나는 계곡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06, 넥서스 BOOK
961	내수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11, 넥서스 BOOK
962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오징어 할복작업을 하는 아낙네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15, 넥서스 BOOK
963	눈길트레킹에 나선 관광객들이 나리분지를 출발해 알봉분지로 향하고 있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30, 넥서스 BOOK

964	나리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나리분지 전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31, 넥서스 BOOK
965	알봉분지와 신령수 사이의 근사한 너도밤나무 숲길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43, 넥서스 BOOK
966	신령수와 뽕재이등대 사이의 등산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44, 넥서스 BOOK
967	눈 쌓인 급경사의 등산로를 힘겹게 오르는 등산객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152, 넥서스 BOOK
968	한국전쟁 당시의 혼란기에 목숨을 걸고 독도수호에 나선 독도의용수비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05, 넥서스 BOOK
969	지방의 한 무용단원들이 독도 선착장에서의 공연하는 광경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10, 넥서스 BOOK
970	회당 70명으로 제한된 입도 가능인원에 들지 못한 삼봉호의 승객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11, 넥서스 BOOK
971	동도의 몽돌해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관광객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12, 넥서스 BOOK
972	4월초의 성인봉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21, 넥서스 BOOK
973	사동 해안에 정박한 뗏목과 여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30, 넥서스 BOOK
974	1900년대 초의 울릉도주민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31, 넥서스 BOOK
975	산나물을 채취해서 귀가하는 주민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37, 넥서스 BOOK
976	가두봉 부근의 해안에서 파개비를 따는 주민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1, 넥서스 BOOK
977	죽도시장의 어판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7, 넥서스 BOOK
978	내연산 청하골의 맑은 계류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48, 넥서스 BOOK
979	행남등대로 가는 길에 바라본 저동향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65, 넥서스 BOOK
980	울릉도 도보 일주에 나선 트레커들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271, 넥서스 BOOK
981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종단수영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33, 한림미디어
982	독도아리랑을 노래하는 힙합 뮤지션 리 제이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56, 한림미디어

983	굽이굽이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만물상전망대에 이르게 된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올릉도 p214, 한림미디어
984	독도와 태극기를 펼쳐든 사람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올릉도 p256, 한림미디어
985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독도궐기대회를 갖고 있는 동도 선착장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올릉도 p272, 한림미디어
986	도동약수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 예나루
987	무사항해를 기원하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9, 예나루
988	뗏목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0, 예나루
989	뗏목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0, 예나루
990	뗏목 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0, 예나루
991	뗏목 4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1, 예나루
992	뗏목 5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1, 예나루
993	뗏목 6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1, 예나루
994	뗏목 7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1, 예나루
995	율브린너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0, 예나루
996	1952년 독도를 조사한 한국산악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9, 예나루
997	독도조사단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8, 예나루
998	독도 의용수비대 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1, 예나루
999	독도와 어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7, 예나루
1000	독도의용수비대 4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4, 예나루
1001	젊은 홍순칠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3, 예나루
1002	독도의용수비대 5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4, 예나루
1003	독도의용수비대 6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97, 예나루
1004	독도의용수비대 7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4, 예나루
1005	경비초사기념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5, 예나루
1006	홍재현 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6, 예나루
1007	독도의용수비대 8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78, 예나루
1008	독도의용수비대 9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80, 예나루
1009	공두업 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3, 예나루
1010	장학상 응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5, 예나루
1011	김찬수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6, 예나루
1012	독도에 주둔하는 전투경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08, 예나루
1013	박정희 전 대통령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4, 예나루
1014	가수 한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7, 예나루
1015	조어도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6, 예나루

1016	토끼 박멸 작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5, 예나루
1017	조어도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6, 예나루
1018	독도동이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6, 예나루
1019	일본인기자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8, 예나루
1020	푸른 울릉, 독도 가꾸기 모임 회원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0, 예나루
1021	최초의 독도 주민 최종덕씨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8, 예나루
1022	남편을 따라 독도로 들어가 갖은 고생을 다한 최종덕씨 부인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89, 예나루
1023	독도주민 김성도씨와 함께한 울릉, 독도 가꾸기 모임 회원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0, 예나루
1024	여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0, 예나루
1025	장철수씨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6, 예나루
1026	이종학 관장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1, 예나루
1027	시마네현 관청 앞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4, 예나루
1028	독도에 나무를 옮기는 회원들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1, 예나루
1029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2, 예나루
1030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 모임의 산파역할을 했던 고 이덕영 초대회장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2, 예나루
1031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3, 예나루
1032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 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3, 예나루
1033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외대 독도연구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2, 예나루
1034	사진작가 김정명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3, 예나루
1035	독도연구회의 활동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4, 예나루
1036	독도연구회의 활동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14, 예나루

6. 기타

1) 동물

번호	제 목	출처
1037	강치	박인식, 1996, 독도 p36, 대원사
1038	여러 어패류 1	박인식, 1996, 독도 p38, 대원사
1039	여러 어패류 2	박인식, 1996, 독도 p38, 대원사
1040	여러 어패류 3	박인식, 1996, 독도 p39, 대원사
1041	여러 어패류 4	박인식, 1996, 독도 p39, 대원사
1042	괭이갈매기 등지 1	박인식, 1996, 독도 p42, 대원사
1043	괭이갈매기의 등지 2	박인식, 1996, 독도 p43, 대원사
1044	괭이갈매기 1	박인식, 1996, 독도 p46, 대원사
1045	괭이갈매기 2	박인식, 1996, 독도 p47, 대원사
1046	괭이갈매기 3	박인식, 1996, 독도 p47, 대원사
1047	괭이갈매기 4	박인식, 1996, 독도 p48, 대원사
1048	괭이갈매기 5	박인식, 1996, 독도 p49, 대원사
1049	독도의 풀, 파도, 갈매기	박인식, 1996, 독도 p50, 대원사
1050	탕진봉과 갈매기	박인식, 1996, 독도 p51, 대원사
1051	동도에서 본 갈매기 군무	박인식, 1996, 독도 p53, 대원사
1052	독도경비대원들과 함께 독도를 지키는 몽이와 곱이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90, 영진닷컴
1053	괭이갈매기 6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2, 영진닷컴
1054	물고기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31, 선
1055	독도와 갈매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25, 선
1056	집계류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2, 해양수산부
1057	집계류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2, 해양수산부
1058	독도 근해의 물고기 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 해양수산부
1059	촛대바위 옆에 떠밀려 오 해파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2, 해양수산부
1060	개볼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0, 해양수산부
1061	파랑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0, 해양수산부
1062	가막베도라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0, 해양수산부
1063	일곱줄얼계비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0, 해양수산부
1064	돌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1, 해양수산부
1065	흑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1, 해양수산부
1066	미역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1, 해양수산부

1067	집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6, 해양수산부
1068	주홍갑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2, 해양수산부
1069	유령명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6, 해양수산부
1070	아펠불가사리의 포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6, 해양수산부
1071	납작소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6, 해양수산부
1072	눈송이갯민승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7, 해양수산부
1073	갯민승달팽이류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7, 해양수산부
1074	별불가사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7, 해양수산부
1075	끄덕새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7, 해양수산부
1076	군소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8, 해양수산부
1077	해파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8, 해양수산부
1078	전복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8, 해양수산부
1079	동해담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8, 해양수산부
1080	문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9, 해양수산부
1081	왜문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9, 해양수산부
1082	돌기해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9, 해양수산부
1083	말전복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9, 해양수산부
1084	보라성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09, 해양수산부
1085	대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2, 해양수산부
1086	철 지난 해조군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2, 해양수산부
1087	볼락 치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3, 해양수산부
1088	큰뱀고등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6, 해양수산부
1089	털군부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6, 해양수산부
1090	조간대의 여러 가지 고등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7, 해양수산부
1091	거북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7, 해양수산부
1092	검은큰따개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7, 해양수산부
1093	돌팍망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1, 해양수산부
1094	쇄파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18, 해양수산부
1095	미역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1, 해양수산부
1096	참갯지렁이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2, 해양수산부
1097	갯민승달팽이류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4, 해양수산부
1098	구름갯민승달팽이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4, 해양수산부
1099	흰갯민승달팽이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4, 해양수산부
1100	갯민승달팽이류 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4, 해양수산부
1101	망사갯민승달팽이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5, 해양수산부
1102	갯민승달팽이의 난괴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5, 해양수산부
1103	갯민승달팽이의 난괴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5, 해양수산부

1104	백금 갯지렁이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05	짧은 더듬이 달걀발 갯지렁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06	단각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07	대나무 갯지렁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08	이매패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09	요정 갯지렁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10	솜털바퀴실타래 갯지렁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11	갯지렁이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8, 해양수산부
1112	선충류 암컷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3	선충류 수컷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4	선충류 일종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5	저서성 요각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6	유공충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7	동문동물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8	자포동물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19	이매패류의 치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29, 해양수산부
1120	팽이갈매기 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7, 해양수산부
1121	독도의 팽이갈매기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7, 해양수산부
1122	독도의 팽이갈매기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8, 해양수산부
1123	노랑턱맷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8, 해양수산부
1124	물수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49, 해양수산부
1125	녹색비둘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0, 해양수산부
1126	흑비둘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0, 해양수산부
1127	딱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1, 해양수산부
1128	되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1, 해양수산부
1129	콩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2, 해양수산부
1130	진홍가슴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2, 해양수산부
1131	상모솔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2, 해양수산부
1132	솔갓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3, 해양수산부
1133	검은 딱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3, 해양수산부
1134	솔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5, 해양수산부
1135	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5, 해양수산부
1136	솔갓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6, 해양수산부
1137	긴발톱할미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6, 해양수산부
1138	바다직박구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6, 해양수산부
1139	횡등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6, 해양수산부
1140	어린 바다제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7, 해양수산부

1141	세가락 도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57, 해양수산부
1142	통구미의 검푸른 바다와 갈매기 때	박기성, 1995, 울릉도 p64, 대원사
1143	현포 앞바다의 바위에 앉아 있는 갈매기 때	박기성, 1995, 울릉도 p42, 대원사
1144	사동의 흑비둘기	박기성, 1995, 울릉도 p69, 대원사
1145	유람선 승객이 내미는 새우깡을 낚아채기 위해 날아든 갈매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2, 넥서스 BOOK
1146	석포마을의 한 너도밤나무에서 먹이를 찾는 울도큰오색 딱따구리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03, 넥서스 BOOK
1147	도동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위의 하늘을 가득 뒤덮은 갈매기 때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63, 넥서스 BOOK
1148	독도 해안절벽의 바위틈에 둥지를 튼 괭이갈매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2, 넥서스 BOOK
1149	독도 유람선을 뒤따르는 괭이갈매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4, 넥서스 BOOK
1150	한때 독도에 많이 서식했다는 물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6, 넥서스 BOOK
1151	유람선을 배웅하고 둥지로 돌아가는 독도의 갈매기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199, 넥서스 BOOK
1152	동도의 기암절벽과 괭이갈매기 때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4, 넥서스 BOOK
1153	섬바다를 먹고 있는 울릉약소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33, 넥서스 BOOK
1154	뱃길을 따라오는 갈매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81, 한림미디어
1155	유람선을 따라다니는 갈매기들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18, 한림미디어
1156	호박나무 열매를 좋아하는 흑비둘기는 울릉군의 상징 새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31, 한림미디어
1157	독도의 진짜 주인, 괭이 갈매기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63, 한림미디어
1158	독도 앞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강아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69, 한림미디어
1159	희기종 나비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0, 예나루
1160	물고기 때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03, 예나루
1161	가제바위 위의 강치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14, 예나루
1162	강치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1, 예나루

1163	강치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52, 예나루
1164	독도경비대와 팽이갈매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23, 예나루
1165	팽이갈매기 부부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32, 예나루
1166	독도의 삽살개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69, 예나루
1167	갈매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72, 예나루
1168	팽이갈매기 새끼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8, 예나루

2) 등대

번호	제 목	출처
1169	동도에 있는 경비대 건물과 등대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35, 영진닷컴
1170	역세 군락으로 뒼인 독도 등대 부근 경사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3, 해양수산부
1171	독도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52, 영진닷컴
1172	독도등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p215, 선
1173	동도의 등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82, 해양수산부
1174	초저녁, 불을 켠 등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2, 해양수산부
1175	오징어배와 독도 등대, 달빛이 어우러진 하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2, 해양수산부
1176	동도 정상부 경비대와 등대의 야경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3, 해양수산부
1177	독도 등대의 에너지원인 태양열 집열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6, 해양수산부
1178	등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4, 해양수산부 <사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4, 해양수산부
1179	등대 가는 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6, 해양수산부
1180	동도 정상부의 시설물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8, 해양수산부
1181	동도의 옛 무인 등대와 연구선 이어도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8, 해양수산부
1182	가파른 바위계단으로 이어지는 독도 등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5, 한림미디어
1183	태하등대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195, 한림미디어
1184	등대 위를 수놓은 구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9, 해양수산부
1185	독도 등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0, 해양수산부
1186	바닷바람이 늘 세차게 불어대는 대풍감 절벽의 태하등대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독도 p70, 벡서스 BOOK

3) 뗏목탐사

번호	제 목	출처
1187	뗏목 독도에 도착하다	박인식, 1996, 독도 p13, 대원사
1188	가산도 뗏목 탐사	박인식, 1996, 독도 p13, 대원사
1189	뗏목을 저어 독도땅을 밟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1190	뗏목 1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1191	바다를 헤엄쳐 독도땅을 밟다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88, 영진닷컴
1192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 설계된 도크의 모습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01, 영진닷컴
1193	뗏목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67, 예나루
1194	뗏목 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70, 예나루

4) 사물

번호	제 목	출처
1195	우체통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34, 영진닷컴
1196	오승윤 화백이 직접 그린 CD 자켓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55, 영진닷컴
1197	깨까치수영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1, 영진닷컴
1198	물골에 설치한 표지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67, 해양수산부
1199	울릉도 망향봉의 독도전망대에 세워진 이정표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00, 넥서스 BOOK
1200	농사용 모노레일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p219, 넥서스 BOOK
1201	해안경비초소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빨간 우체국	차준근, 2006, (extream) 익스트림 울릉도 p272, 한림미디어
1202	얼어붙은 발해 1300호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99, 예나루
1203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302, 예나루
1204	하이드레이트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9, 예나루

5) 태극기

번호	제 목	출처
1205	독도에 태극기를 게양하다	박인식, 1996, 독도 p10, 대원사
1206	독도의 태극기	박인식, 1996, 독도 p11, 대원사
1207	태극기 1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44, 영진닷컴
1208	태극기 2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p176, 영진닷컴
1209	태극기 3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198, 예나루
1210	태극기 4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6, 해양수산부
1211	독도와 태극기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210, 예나루

6) 한국산악회

번호	제 목	출처
1222	한국산악회 1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9, 예나루
1223	한국산악회 2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9, 예나루

7) 해양조사

번호	제 목	출처
1224	동도에서 서도로 이동하는 탐사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47, 해양수산부
1225	작업을 위해 정박중인 온누리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5, 해양수산부
1226	일몰 시간이 되어 점등을 하고 있는 온누리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65, 해양수산부
1227	조사정점 도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3, 해양수산부
1228	한국해양연구소연구선 이어도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3, 해양수산부
1229	선상실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1230	생물조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1231	이어도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1232	해양조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p174, 해양수산부
1233	보물선탐사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5, 예나루
1234	무인잠수정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p86, 예나루

참 고 문 헌

- 강무희 · 한현철 · 윤혜수 · 이차원, 2002, 동해 독도주변 해산의 지구물리학적 특성, **『The Sea』**, 7(4), 282~284.
- 장석오, 1985, **『신한국지리』**, 대한교재출판사.
- 고의장, 2004,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경관에 관한 비교연구, **『지리학연구』**, 9, 498~505.
- 권혁재, 1995, **『한국지리: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 김관중, 2000, (김관중 사진집) **독도, 독도수호대**.
- 김윤곤, 2003, “우산국 · 우산도인의 해상활동과 韓동해문화권”, **울릉도 · 독도 동해안 주민의 생활구조와 그 변천 · 발전**, 영남대학교 출판부, pp.9~109.
- 김주환 · 박수진 · 공우석 · 서태열 · 양보경, 2006, **울릉도 및 독도의 지리적 특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태원, 2003, “울릉도민의 이주와 정착과정”, **『울릉도 · 독도 동해안 어민의 생존 전략과 적응』**, 영남대학교 출판부, pp.321~389.
- 김학준, 2003, **독도는 우리땅, 해맞이**.
- 김호동, 1998, “군현제의 시각에서 바라다 본 울릉도 · 독도”, **『울릉도 ·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화홍, 2005, (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인간과 자연사**.
- 박기성, 1995, **울릉도**, 대원사.
- 박동원 · 박승필, 1981,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 조사보고서』**, 19, 37~50.
- 박인식, 1996, **독도**, 대원사.
- 박희두, 1997, **울릉도의 자연자리**, **『지리학연구』**, 31, 27~40.
- 백산서당, 2003,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 송병기, 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 송병기 편, 2005,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 서인명, 1984, **울릉도 화산지형에 관한 연구**, **『상당지리(上黨地理)』**, 청주대학교 지리교육학과, 3, 53~60.
- 신용하, 1997,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 양영훈, 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땅) 울릉도 · 독도, 넥서스 BOOK.
- 양인석, 1956, 울릉도의 식물, 경북대논문집(자연과학), 5, 17~65.
- 양태진, 2004,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백산출판사.
- 오오니시(大西俊輝)(권오엽, 권정 옮김), 2004, 독도, 제이엔씨.
- 울릉군, 1982, 「울릉도 개척백년」.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선.
- 이덕봉 · 주상우, 1958, 울릉도 식물상의 재검토, 고대문리논집, 3, 223~296.
- 이병후, 2003, “울진지역과 울릉도 · 독도와의 역사적 관련성,” 울릉도 · 독도 동해
안 주민의 생활구조와 그 변천 · 발전, 영남대학교 출판부, pp.237~311.
- 이성규, 1990, 독도의 식물상과 토양환경, 「상지대 논문집」, 제11호, 6~8.
- 이수광, 2003, 독도는 일본땅 ; 독도지킴이 이수광의 해양 에세이, 중앙 M&B.
- 이예균, 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88, 예나루.
- 이재영, 1977, 울릉도의 지질학적 고찰, 「울릉도 · 독도 답사 기요」, 울릉도 · 독도
답사기요편찬회, 84~49.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임양재, 이은복, 김선호, 1981, 울릉도 및 독도의 식생,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
고서, 19, 97~111.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6, 울릉도 · 독도의 지질, 「자연실태종합학술조사보고서」,
제 10집, 62~70.
- 전혜숙, 1998, “울진 해촌의 신화와 제의”, 울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민속원(이병
후, 2003, 296~297에서 재인용).
- 정광태, 2005,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영진닷컴.
- 정장호, 1980, 한국지리, 우성문화사.
- 재성일, 1995, 울릉도의 관광개발, 「청주지리」, 10, 43~49.
- 차종환, 2006, 한국령 독도, 해조음.
- 차준근, 2006, (extream) 울릉도, 한림미디어.
- 한국해양연구원, 2005, 독도 해양생태계조사 연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2001, 아름다운 섬 독도, 해양수산부.

울릉도 · 독도 사진 자료집
- 자연 · 인문지리 편 -

2007年 12月 27日 印刷

200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 正 煥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 · 印刷/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